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UL 8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69 1982년 7월 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ly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신용조합 $5만까지 융자

부동산 담보·조합원 대상·3년단기

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부동산을 담보로 $5만 한도의 대출을 실시한다고 1일 창간된 〈한인신용조합 운영 뉴스〉가 밝혔다.

조합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이 뉴스레터에 따르면 1인당 $5만 한도의 대출은 최고 3년기한의 단기형 모기지로서 이자는 최우대금리(Prime Rate)보다 2%내지 2.25%정도 높은 선에서 결정된다.

7일 현재를 기준하면 시중은행이 가장 신용이 좋은 고객에 주는 최우대금리는 연리 18.5%이므로 신용조합의 $5만한도 융자의 이자는 20.25%내지 20.5%이다.

1만달러 이상 대출일 경우, 최우대금리보다 1%~2%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토론토외환은행의 7일 금리는 19.25%~20.5%로 금리만 놓고 볼때 외환은행이 유리하다.

그러나 예금금리는 신용조합이 항상 외환은행 보다 약간높다. 금융업계 소식통들은 신용조합이 블루어지점을 연 토론토외환은행과, 고객유치 경쟁및 최근 늘어난 조합의 유휴자금 유용이 이같은 대출액 확대를 가능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인신용조합은 조합원1인당 $5천(부부의 경우 $1만)까지 융자해 왔으나, 최근 유휴자금이 축적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7일 이흥렬 한인신용조합 전무가 확인했다.

한편, 뉴스레터 제1호는 5월말 현재 조합원총수 1,363명으로, 총재산 $2,562,420으로 발표, 작년 연말 1,203명, $1,614,200에 비해 160명, $948,000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2년간 각 $1만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신용조합은 이같은 획기적 재산증가 추세에 힘입어, 금년 년말 결산에는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금년도 신용조합의 총자산 목표액은 $3억이다.

토론토외환은행 블루어지점 설치로 조합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용조합은 은행과 목적이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들의 결속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합은 현재 소정의 융자신청서를 보증인 1인의 보증을 받은 조합원에게, 매 화요일 밤 심사를 거쳐, 수요일 대출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자격은 한인으로서 1주($5)이상의 주를 사면된다.

수출초과 $148억 예상

캐나다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 금년말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면 캐나다 148억 달러의 수출초과 기록을 세운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80년도 78억 달러의 2배이다.

지난 5월의 수출초과는 4월보다 증가한 13억6천만 달러 였다. 5월의 수출은 $69억6천만, 수입은 4월보다 4.9%가 줄어 $56억이었다.

환화 : 캐나다달러
7월7일 현재
572.02/574.90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외환 고갈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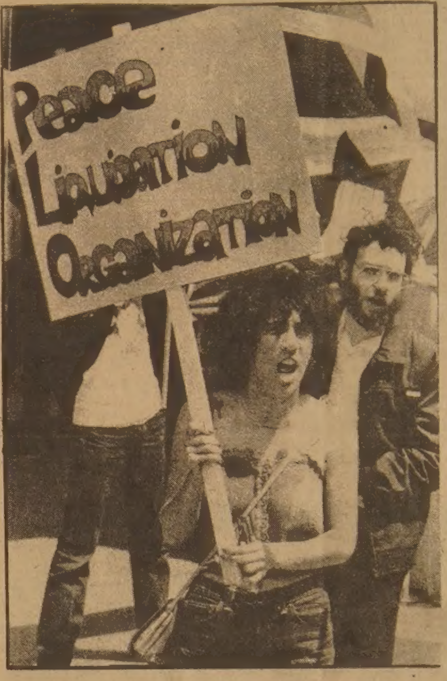
6월중 $29억 풀어

(오타와)연방정부가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6월중 무려 29억달러를 소비했다는 뉴스가 있은 5일중 캐나다 달러의 대 미국달러가치는 하룻만에 거의 0.4센트가 떨어져 77.58센트가 됐다.

외환시장의 옵저버들은 연방정부가 달러를 위해 소비한 액수가 놀랄만한 금액이며 정부는 머지않아 정부보유달러를 다 쓰고도 모자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접촉해야할 것으로 예견했다.

IMF는 국가가 심한 재정난에 직면할 때 돈을 빌려가는 최후의 기관이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한번도 IMF돈을 쓴 적이 없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에 항의하는 토론토 시민들의 데모 광경. 이스라엘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대신 Peace Liquidation Organization(평화 동결 기구)라는 말이 쓰여 있다.

신한은행 탄생

재일교포들 출자

(서울7일=연합)시중은행으로서는 6번째이며, 최초의 외국계 자본인 순수민간 은행 신한은행이 탄생했다.

명동본점등 2개의 서울지점과, 1개의 대구지점에서 일제히 영업을 시작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재벌들이 전액출자한 민간은행으로 자본금 250억원(미화 3,360만 달러)로 출발했다.

금년예금목표를 900억원, 대출 목표를 1,110억원을 잡은 신한은행은 금년말까지 자산금을 2천4백억원으로 늘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개점은 한국금융국제화 조치의 일환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출자하는 한미합작은행도 곧 탄생할 예정이다.

캐나다에 외환은행, 한일은행이 독립은행을 세운것도 금융국제화 조치의 일환이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중국어 70% 늘어 22만명

인도－파키스탄어는 배증

(오타와)81년도에 영어를 제1국어로 하는 인구는 전인구의 61.28%로, 76년도의 61.42%보다 약간 감소됐다.

81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불어를 모국어로 한 인구는 25.67%로 5년전보다 0.07%가 늘었다.

그러나 영어를 제1국어로 한 절대인구는 약80만명이 증가, 1,490만명 이었다. 불어인구는 36만명이 불어났다.

3번째 언어는 이태리어로 52만9천명, 4번째는 독일어로 52만3천명 이다. 이 두 언어의 인구는 각각 9.2%, 9.7%가 증가, 인구증가율 5.9%를 능가했다.

인도－파키스탄어 인구는 76년보다 2배가 증가한 11만7천명, 중국어는 70%가 늘어 22만4천명이 됐다.

모국어별 인구조사는 81년도가 처음이었다.

한국어 인구는 「기타」란속에 포함,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퀘백주의 영어사용 인구는 76년 르네·레백수상의 「퀘백인당」집권 당시 80만명에서, 81년에는 70만6천명으로 12%가 줄었다.

$1짜리 동전 주조

(캘거리)캐나다조폐공사(Royal Canadian Mint)는 1달러짜리 동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미 모형을 선보인 $1짜리 동전은 25센트짜리 보다는 조금 크고, 50센트짜리 보다는 조금 작으며 내년말경 현재의 $1 지폐와 전부 교체된다. 1달러짜리 동전은 물품 무인판매기 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들의 환영을 받으나 정부는 이것이 캐나다 돈가치의 하락을 의미,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독은…
533 2361

주택모기지에 보조금

「사」주서 이자감축법 제정

(르자이너)사스캐치완주의 3만8천명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이율을 13¼%로 일률화 하는 법안이 6일 주의회서 최종독회를 거쳤다.

9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인 모기지 이자율 감축법은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10만5천명의 주택소유자는 앞으로 3년간 현 모기율과, 13¼%의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받는다.

모기지 평균액수인 3만4천달러, 19% 25년 만기 모기지를 기준, 가족당 보조비는 월142달러80센트가 된다.

혜택받는 모기지액은 총액 5만달러까지 이다.

토요우편배달제

철 폐 고 려

(오타와)캐나다우편공사는 적자 감축을 위해 2,831개 토요일 배달노선을 철폐할 것을 검토중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토요일 우편배달제가 없어졌으나, 온타리오와 노바·[illegible] 는 아직도 주6일 배달제도가 계속된다. 이에 드는 예산은 3천4백만달러 이다.

우편공사는 다른 부문에서는 더이상 적자를 줄일수 없다.

한국어교수법 강좌실시

토론토대 성인교육부서

한국어교수법 강좌가 캐나다 이민사상 처음으로 토론토대학 성인교육부(School of Continu ing Studies)에서 실시된다.

가을 학기부터 시작될 한국어교수법(Teaching Korean) 코스는 한국어 교사들이나,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매주 월요일밤 7시부터 9시까지 20회에 걸쳐 실시되며, 등록금은 $160이다.

교과내용은 현대 한국어의 음성및 문법구조, 한국어 역사, 음운및 구문적 발달, 언어학습 원리및 교수,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등이다.

강사는 토론토대 동양학부 조교수인 백응진씨로 백씨는 서울사대 영문과, 고대대학원 영문과를 거쳐, 브리티쉬·콜럼비아대에서 석사및 박사(언어학) 학위를 받았다.

이 강좌는 자격증을 주기 위한 코스가 아니므로 수강자의 학력·경력 제한은 없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6일 새벽1시33분 월식 광경. 달은 1시간46분간 지구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 보름달있는 달밤이 달없는 밤이 됐다. 완전 월식시간은 123년만의 최장 기록이었다. [글로브·앤드·메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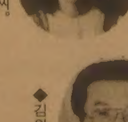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의 초대

녹음 우거진 청량의 계절, 하시는 사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한인민족상운영위원회 주최 제2회 한인민족상에 영예의 수상자로 선출된 아래 4씨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복된 자리에 빛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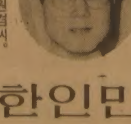
— 아 래 —

때 : 1982년 7월17일(토) 하오 4시
곳 : 토론토한인회관
(20 Mobile Dr. Toronto)
수상자 : 학술상—권오율, 예술상—김영숙
공로상—박재선, 봉사상—김원겸
※식후 다과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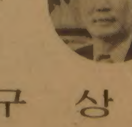


◆김영숙씨.

◆권오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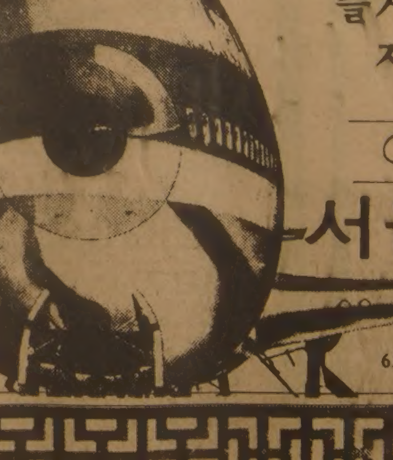


◆김원겸씨.



◆박재선씨.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커빈석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동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 이민사료 본격수집

미학계, 캐나다·미국 교민지 필름에 수록

(뉴욕지사)80년에 이르는 미국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적자료가 빈곤해 재미한국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현실에 착안, 앞으로라도 한국인의 활동자료를 모으려는 노력이 교포사회가 아닌 미국 연구기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 아시아학회산하 동아시아도서관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요 교포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 자칫하면 유실되기 쉬운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도서관위원회의 한국자료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하씨(하바드대 연경도서관 한국부장)에 의하면 8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아래 이미 자료조사가 시작됐으며 미국, 캐나다등 북미주에서 발행되는 14종의 한글 및 영문교포신문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모두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할 계획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국관계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의 하바드, 콜럼비아, 워싱턴, UC 버클리, 하와이대학등 5개 대학도서관과 워싱턴의 국회도서관및 시카고의 도서연구센터등 7개주요도서관에 영구비치한다는것.

한국자료분과위원회 주관으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장하고 있는 북미한인교포사회의 역사를 한눈에 생생히 볼수있게 되어 교포이민사 연구에 결정적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북미교포사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외에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대한 도서수집및 목록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으로 미국내 각도서관에 비치된 한국관계자료의 종합목록도 작성할 예정이다.

한국어선 1대 북한납치 모면

(서울 6일=연합)동해의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1척이 북한순시선의 납치기도를 가까스로 모면했다고 수산청이 6일 발표했다.

38명의 승무원을 태운 성진5호는 5일 아침 울릉도 동북부 352km지점에서 북한순시선으로부터 정지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북한측은 즉시 위협발포, 성진5호의 일부를 파손시켰다. 북한순시선에는 4명의 북한어부와 해군장교가 있었으며 성진호 승무원에 총구를 겨누며 북진토록 위협했으나 성진5호가 계속 불응하자 북한승무원들은 3개의 신호장치만을 압수, 돌아갔다. 재빨리 남진한 성진호는 다른 어선과 합류, 해군당국에 구조를 요청했다.

"불교와 세계평화 를 위해"

승산스님 법회, 11일 불광사

대한불교회 조계종 불광사(주지 석광옥스님)는 오는 11일 하오7시 "불교와 세계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교민들을 위한 승산행원선사 대법회를 갖는다.

◆승산행원선사

승산스님은 10년전 도미, 로드아일랜드주 컴버랜드에 「프라비던스 젠 센터」(Providence Zen Center:선방)를 창설, 지금까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호노룰루등 미국 주요도시에 20여곳의 선방을 설치, 순회하며 미국인들에게 대승불교의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유럽에도 선방이 세워졌으며, 폴랜드에는 7군데나 있다.

캐나다에는 1년에 봄·가을 2번 방문, 온타리오센터에서 법회및 용맹정진 지도를한다. 용맹정진은 원래 자지 않고하는 참선으로 이곳에서는 하루에 10시간 3일동안 실시한다.

승산스님의 이번 캐나다 법회는 캐나다인을 위해서는 이미 7일하오7시30분 40 Orchard View Blvd. 소재 도서관에서 열렸으며, 9일~11일 3일동안 온다리오 젠 센터에서 용맹정진을 지도한다.

불광사 석광옥스님은 미국과 캐나다의 불교신자들 중에는 교수와 의사들이 많으며,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달마선생도 많이 배출됐다고 말했다.

승산스님은 도미전 일본에서 7년간 선을 지도하고, 그전에는 화계사와 수덕사 주지스님으로 있었다.

승산행원선사 대법회에 관한 문의는 불광사(전화 223-9152)로 하면 된다.

두 런던 낚시대회 성료

홍사범 가족이 휩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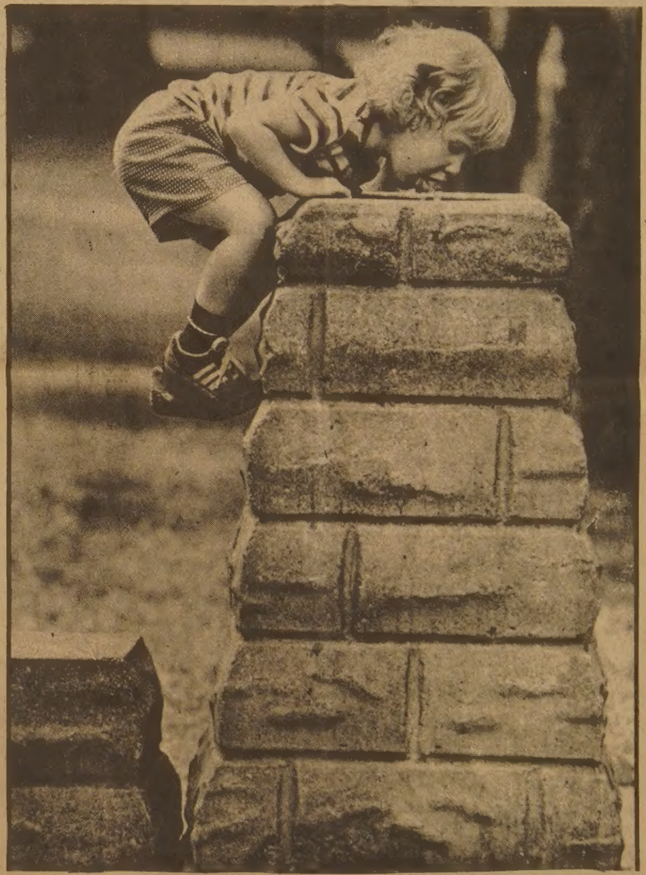
(런던=강상권지국장)태권도사범 홍성인씨 가족이 런던의 낚시대회를 휩쓸었다.

3일 약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런던 펜시아공원에서 열린 런던한인교회(목사 선용규) 남전도회 주최 교민낚시대회에서 홍씨의 장남 홍원기군이 10.5파운드 잉어를 낚아 중량상, 홍씨 모친 이장분여인은 4파운드짜리를 잡아, 부녀상을 탔다.

이보다 앞서 열린 런던낚시대회 주최 대회서는 홍씨부인 홍희자여사가 특등, 애뉴얼·트로피를 받았고, 홍씨장모 서은여 여인은 부녀상을 받았다.

이번 교민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1등 중량상 홍원기 10.5파운드
2등 빌리·신 5.9파운드
3등 최호연 5.8파운드
부녀상 이장분 4파운드
장려상 신동현 5.8파운드



◆ 캐나다·데이 공휴일을 전후로 본격 여름날씨가 시작된 듯. 햇볕 쨍쨍한 더운 날씨를 못이긴 2살반짜리 사라양이 3 일낮 퀸즈팍의 분수대에 기어올라 목을 추기고 있는 모습.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凶器와 사나이 <22>

冷血 ⑥

『모세……』

기다려도 그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는 먼저 초조하게 그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는 대꾸조차하지 않았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결판을 내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

『여자등쳐먹는 제비족이에요?』

『……』

『말좀 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 필요 없어.』

『저를 왜 오로도괴롭힐 거예요?』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나와.』

『그럴 수는 없어요. 더이상 만나지 말아요.』

『멋대로 결정하지 마.』

『그럼 어떡 하자는 거예요?』

그녀는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싫다고 할때까지 만나야 해. 일년이 되지 이년이 되지, 아니면 십년이 될지 그건 나도 몰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요구하는게 뭐예요?』

『네 육체 이외에는 없어.』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돈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돈이 필요하면 난 얼마든지 마음대로 마련할 수 있어.』

『돈 한푼 없이 저를 만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녀는 백속에서 50만원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50만원 가져왔어요. 제성의니까 받아주세요.』

『필요없어. 가져가.』

그녀는 돈뭉치를 꺼내 탁자위에…

朴 男 그림

『필요할텐데 쓰세요.』

그녀는 일어섰다. 그는 손가락을 세워 그녀를 가리켰다.

『누가 가라고 그랬어?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어. 옷을 벗고 이리 와.』

『가야해요.』

『안 돼. 내가 가라고 할때까지는 갈수 없어. 옷벗고 이리 와.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파티를 열지.』

『가야해요.』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일어나서 벗어와야 하나?』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채 절망적인 몸짓으로 입었던 옷을 다시 벗었다.

박문자가 모세의 손에서 풀려난 것은 밤 10시가 지나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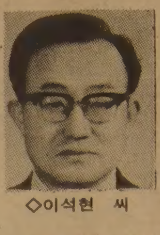
그녀는 너무나 혹독하게 다루어진 나머지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었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앞으로의 결과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다. 해운대에서 가졌던 정사가 비수로 가슴을 도려내는것같은 아픔으로 전해져왔다. 미친년, 내가 술을 마시고 환장을 했지. 남편이 출장간 사이 외간 남자와 미쳐서 놀아나다니. 고통을받아 싸지. 후회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다.

<제3회 한맘교육강좌>

가정에서의 책읽기 <2>

이 석 현(문인협회 고문)



◇이석현 씨

(나)독서지도의 실제

어린이 독서지도의 방안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유도해야 효과적이다.

1) 평소에 어머니가 어린이와 나누는 독서에 관한 대화에서 오고 간 책에 대한 취미와 관심을 살펴볼것.

2) 2책주의―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게 하고, 다음에 엄마가 골라주는 책의 둘을 읽게 하는 것이 좋다.

3)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읽고, 읽고난 느낌을 알아본다.

4) "독서일기"를 쓰게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은 평가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5) 독서의 결과―

◆성격형성에 있어 집중력을 길러준다.

◆모국어의 독해력·이해력을 길러준다.

◆문장력에 놀라운 성장을 볼 수 있다.

6) 독서를 통해서 본 남·녀아동의 차이.

남자아이는 상상력에 자극제가 되는 공상적 과학이야기, 아슬아슬한 모험담·호기심을 북돋는 발명발견에 관한 글에 흥미를 품고,

여자아이는 애상적인동화책·순정소설등 쫓등이 시큰한 글을 즐겨 읽는 경향이 공통적임이 조사·통계에 나타났다.

7) 책의 선택방법―전전만화·명작동화, 감동과 감흥을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독서에 대한 애착을 붙인뒤, 과학이야기·위인전·모험담·도의적인 책등으로 진전시켜 나갈것.

흥미를 유발시켜, 그 흥미를 건전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돌려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것이 어머니의 책임이다.

한편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은 미리 검토하여 악서가 아니면 다 읽게해야 한다. 독서취미를 붙여주기 위해…. 그러나 사전에 어버이가 그 책에 대해 검토할 성의와 조심성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종을울려주는 말이 있다.

"눈동자라는 창문으로 악이 영혼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비오12세)

학교공부에 주력시키기 위해 너무 독서제지 일변도로 나가면 융통성 없고, 좁은 편협성 인물로 자랄 우려가 있다.

"이민생활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의 읽을거리, 볼거리(TV·만화등)에 너무 무관심한 부모는 보다 큰 본분을 소홀히 하는 무책임을 저지르는 셈이다.

(다)도서의 선택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는 말은 독서의 중요성과 지은이의 사명감을 강조한 말이다.

1)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2)어떻게 읽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책 고르기의 실제에 있어 능력별(단계적)선택과 취미별 선택으로 나눌수 있겠다.

◆능력별(단계적)선택(3~12세)

1)그림책
2)그림+이야기
3)이야기+그림
4)유년동화
5)생활동화(만화포함)
6)순수동화·전래동화(전설·신화)
7)소년소설(역사·과학·공상물포함)

◆취미별선택(10~12세)

1)순수문학
2)전기(인물전)
3)역사·지리
4)과학물
5)모험기
6)기타

◆유의할 점

1)지도자는 보호 역할을 하며,

2)민족 주체성과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양성―이 두가지에 유의할 것

(라)독서법 구체안

1)시간과 자리(곳)의 고려―조급하지 않은 시간에 시끄럽지 않은곳에서 독서해야 잘 흡수·소화 된다.

2)6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찌되었는가?)에 의한 읽기를 해야 이해·평가에 도움이 된다.

3)구조적 독서

주제―줄거리―결과―읽고난 감상표현

4)숨은 뜻 찾기

작가의 의도(주안점) 탐색과 독자(어린이)의 주관적 비판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5)극화시켜 읽기(구연동화 형식)

입체낭독, 재현(흉내·입내)낭독도 이해에 크게 힘이 된다 하겠다.

6)감상문 쓰기(독후감)

▲재미난 귀절(그림포함)
▲중요한 대목 묘사
▲숨은 뜻 정리
▲종합정리(결론)
▲극본 구성 (끝)

한국북춤·고전의상 소개

스카보로 「소수민족 주간」

스카브로시의 「소수민족주간」이 4일개막, 1주일간 스카브로의 타운센터에서 각민족 종합전시회·민속예술·문화도 소개된다.

한국을 비롯, 일본,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그리스 등 약20개국이 참가하는 소수민족주간 개막행사는 4일저녁7시30분 스카보로 시빅센터에서 열려, 김용순 무용단원 3명의 북춤, 한인중고생들의 한국고전의상 7가지를 소개하는 햇션·쇼 출연도 있었다.

이어 이날밤 9시반부터 1시간 동안의 리셉션에서는 각국 별미음식 시식도 있었는데, 한국측은 송편을 내놓았다.

인삼은 섹스에 특효

쥐대상 실험 결과

당뇨병에도

(서울3일=연합)인삼이 당뇨병예방에 특효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양대 의료연구팀의 김종만, 구국회, 우교석교수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인삼 추출액은 혈당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200마리의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드러났다.

인삼을 쥐에 먹여본 결과, 쥐의 성적활동이 왕성해졌음이 3일 발표된 서울 가톨릭의대 김청진교수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김교수는 82마리의 남성쥐에 5일간 인삼추출액을 주입한 뒤 4개월간 지켜본 결과, 보통 쥐들보다 훨씬 회수가 많고, 적극적인 섹스를 즐기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구독은 533 2361

∽제보를 환영합니다∽

"자랑스런 자녀"

학기가 바뀌는 시즌이 되면서 자녀의 성적표는 부모의 자랑이 되기도,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성적뿐 아니라, 무슨 방면에서든지 우수한 자녀에게는 격려를, 성적이 부진한 자녀에게는 채찍이되기 위해 마련한 이 광장에 자랑할 만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제보를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자랑거리, 자녀의 이름, 나이, 부모의 이름, 직업, 이민연한, 가족사항등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부로 보내 주십시요.

전화는 533-2361.

주소는: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입니다.

中東 同門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

금년도 중동 동문회에서는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하오니, 동문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8일(일) 아침 10시
◉장 소 :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HWY 7과 Air Port Rd. 만나는 지점에서 10마일 북쪽에 위치함)
◉준비물 : 각자 점심및 낚시도구 (상품및 드링크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홍사겸 742-5672
이용석 363-3687
신경식 439-3690

중동동문회 회장 홍 사 겸

인 사 말 씀

본 후원회에서 주관한 제3회 김용순 무용발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체교민 및 교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공리에 지난6월12일에 그 막을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동 행사의 결산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오니 앞으로 배전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82년 7월 1일

한국민속예술후원회 이사장 서 준 경

● PROGRAM 사진 : 박정환

●화환 보내주신 분

세계일보사 사장, 6월회, 해병전우회, SUN CLUB, 대한체육회, 아리랑하우스, 한인실업인협회, 배용문, 고마태오 신부, 비둘기식자, 대한부인회, 한인회

●결산보고

●총수입계 : $10,342.00
입장권 수입 : $4,882.00
찬조금 수입 : $5,460.00

개인찬조금 : $3,110.00
유영갑, 서준경, 이기천, 김병권, 최우덕, 곽정열, 정태호, 김현모, 손명수, 김춘탁, 강우석, 이창복, 이기훈, 유재영, 장추신, 이건영, 오충원, 이영헌, 최동주, 이한영, 김만구(이상 각 $100 : 총 $2,100)
한용식, 서형석, 송의섭, 유지원, 김종조, 곽창수, 강윤모, 송창섭, 윤호영(이상 각 $50 : 총 $450)
양회신, 조지섭(이상 각 $30 : 총 $60)
박인순 : $200, 이병권 : $300

〈단체 찬조금 : $2,350.00〉

실업인협회	$200	동우회	$200
배재동창회	$200	씨알학교	$50
라이온스클럽	$200	한인장학재단	$500
코리아타운번영회	$200	숭공문화협회	$200
필 클럽	$200	무명단체	$100
총영사관	$300		

●총지출계 : $9,971.71

극장임대료	$2,400.00	입장권인쇄비	$85.60
포스터, 프로그램 인쇄	$1,300.00	스테이쇼나리 인쇄	$61.20
비데오 & 사진 촬영비	$400.00	광고비	$810.00
녹음비	$100.00	번역료	$50.00
무대감독비	$300.00	인쇄물디자인비	$100.00
연습비	$581.54	출연자간담회비	$372.03
의상비	$3,000.00	회의비	$296.74
파킹료	$20.60	잡 비	$100.00

한국민속예술후원회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 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로 무사히 발표회를 마침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코자 합니다.

◉강습내용 : 한국무용 및 JASS BALLET

◉시작일시 : 7월9일부터
◉요 일 : 월·수·금
◉시 간 : 오후2시~4시까지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전 화 : 922-2241, 924-3905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펩시콜라와의 협상 난항

협회, 일괄 49¢ 주장, 불매운동 불사

음료회사들과 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불사협회에서는 코카콜라, 7-UP과의 프로모숀은 성공했으나, 수차례에 걸쳐서시도한 펩시·콜라(쎄일즈매니저 Mike NcGoey)와는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해 최후의 심각한 국면(Conforntation)에 접어들었다.

협상에 나선 차선겸, 김이열, 조기연 회장단은 26 온즈에 대해 전회원에게 일률적으로 49센트의 프로모션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펩시측에서는 각회원 상점별 코카콜라의 가격을 조사, 49센트, 55센트, 59센트의 등급별 프로모숀을 고집하고 있다.

토론토 컨비니언스·스토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협회의 구매력을 입증하고, 그 힘이 팝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불매운동등을 고려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각 팝회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 끈질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실협측 제안을 재검토, 일주일이내에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 펩시콜라측의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토론토 선 문제와 함께 팝회사의 딜 문제는 협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서 7월11일의 제3차 이사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ntario

온타리오주 빈병에 관한 규정

상점에서 빈병 문제로 인한 언쟁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온타리오주 규정을 다시 게재한다.

1)가게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싸인을 붙이되 가능한한 음료수를 진열한 장소나, 빈병을 받는 장소에 부치기 바란다.

REGULATIONS OF THE PROVINCE OF ONTARIO UND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PROVIDE THAT A CASH REFUND OF THE FULL DEPOSIT WILL BE PAID FOR UP TO 48 INTACT AND REASONABLY CLEAN REFILLABLE CONTAINERS IN ANY 24-HOUR PERIOD OF BRAND AND FLAVOUR OF CARBONATED SOFT DRINK SOLD HERE IN CONTAINERS OF THE SAME SIZE WITHIN THE PRECEDING SIX MONTHS.

2)반환할 수 없는 병이나, 깡통에 든 음료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같은 종류와 크기의 병을 그 옆에 진열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같은 상표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반환할 수 없는 병을 판다는 싸인을 창 밖으로 보이게 걸었을 때에는, 같은 크기종류로 반환할 수 있는 병도 판다는 문구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4)크기, 종류, 상표가 같은 음료수를 귀 상점에서 파는 경우에는 그 빈병을 받아주어야 한다. 다른 특정가게에서 구입한 표시나 싸인 또는 도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5)같은 손님으로 부터 하루에 48개이상의 빈병은 받지 않아도 된다.

6)깨졌거나, 금이 갔거나 또는 더러운 병은 받지 않아도 된다.

7)가게의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나 빈병을 받아야 한다.

8)현재는 취급하지 않더라도 6개월전까지 취급한 병이면 받아 주어야 한다.

9)1978년4월1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는 병은 제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이후에 재고를 판매할 시에는반드시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 주요금리 %

	Recent	Previous week	Year ago
CENTRAL BANK RATES			
Canada	16.58	16.59	19.06
U.S.	12.00	12.00	14.00†
MONEY MARKET RATES			
Canada T-Bills: 90 days	16.30	16.50	18.85
Bank Paper/Deposits: 90 days	16.90	17.10	19.20
Corporate Paper: 90 days	17.05	16.90	19.30
Call Loan Average	16.20	15.90	18.30
Canadian Prime Rate	18.25	17.50	20.60
U.S. RATES			
Prime Rate	16.50	16.50	20-20¼
Fed Funds	14.24	13.43	19.20
Secondary CDs: 90 days	15.51	14.09	17.95
Commercial Paper: 90 days	15.25	14.17	18.13
Interbank Euro$: 180 days	16.50	15.13	18.00
BELLWETHER BONDS			
Canada 15%/1984	16.43	15.60	–
Canada 10¼%/2004	15.84	15.43	15.20
Ontario Hydro 14¾%/2006	16.87	16.62	15.91
Quebec Hydro 13¾%/1986	17.55	17.20	15.94
Bell CDA 9¾%/1999 (AAA)	17.32	16.90	15.90
CIL 14¾%/1985 (AA)	17.60	17.10	–
Walter Res. 15½%/1986-91(A)	16.80	16.31	–
MORTGAGES	19.75	19.50	18.75
TRUST CO. GICs: 5 YEARS	18.00	16.25	15.75
NON-CHEQUING SAVINGS	13.75	13.25	16.25

*Transactions generally average $1 million.
†4% surcharge on frequent borrowings.
Source: McLeod Young Weir Ltd.

광고주를 찾습니다!
연락처: 533-2361

三國志 412
글·高羽榮·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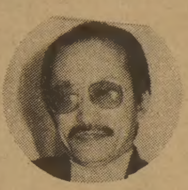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상담실 소고

"증거·냉정·인내"

강공선(상담실장)


◆강공선씨

상담실 일을 맡은지 2주일 밖에 안된 2월22일 회원인 H씨가 사무실을 찾아와서 해결을 의뢰한 내용은 이러하다.

8~9개월전인 81년6월5일 받은 일이 없는 밀크대금으로 $431.13의 청구가 왔기에 지불을 안했더니, 그 후에받아야할 리베이트 $499.08에서 이를 공제하고 차액 $67.95만이 수표로 왔다. 이 수표마저 착오로 다른 상점명의로 왔기에 세일즈맨에게 주어 시정을 요구했더니, 그 후 수없이 연락해도 밀크를 안 받았을리가 없다는 등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H씨는 싸우다 지친 나머지 사무실이 새로 생겼다기에 찾아 왔다고 한다.

초년생으로 첫번 당하는 금전문제인데다가 밀크회사와 지면도 없는터라 무작정 해당 회사를 찾아가서 꼭 규명하고 말리라 마음먹었다.

해당 매니저를 만나 내용을 설명하니까 여직원을 시켜 조사하더니, $ 67.95은 H회원 앞으로 재발행해서 우송하겠다고 한다.

다음에 H씨 상점에서 누군가가 인수했다고 싸인을 했을 $431.31의 밀크 인보이스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창고에 깊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한다. 전화받으면서 바삐 볼 일을 보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 매듭을 짓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

약30분이 지난후에 창고가 어디있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건물에 있단다. 골프이야기를 하면서 또 앉아 기다렸다. 별수가 없는 것을 알아챘는지 열쇠를 들고 일어서기에 따라 나섰다. 어둑컴컴한 창고에 산더미 같이 충충히 쌓여있는 서류함들 틈을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당 상자를 풀고 뒤졌으나, 얄궂게도 그 날짜의 인보이스만 없었다. 이 사람들 서류분류·보관해놓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다.

먼지를 털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받은 증거가 없으니,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작년 6월이면 그때가 마침 스트라이크 기간이므로 오샤와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샤와 어디쯤되느냐고 주소를 달라니까 이 눈길에 거기를 어떻게가려느냐면서 전화해서 찾아보게 하고 연락해주겠다고 한다. 받아낼수 있을것 같아 일단 협회 사무실로 철수했다.

1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3월1일에 전화해서 골프치러 안 가겠느냐고 하니까 전액을 수표로 본인에게 우송했다고 농문서 답을 하면서 서로 웃었다.

H회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수표가 2~3일내에 도착안하면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문제는 10일만에 해결됐다.

증거를 위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일 없이, 끈기있게 핵심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인 것 같아 한 예를 들어보았다.

아이스크림의 거래를 트고 싶은 욕심에서 세일즈맨은 15%의 리베이트를 약속하고는 년말 수표금액은 8%에불과하여 항의하면 그런약속한 일 없다고…. 증거로 명함뒤에라도 자필로 써서 받아 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55센트씩이라기에 팝을 40c/s 주문했는데, 75센트짜리로 왔기에 항의하니 그런 주문 받은일이 없다고…. 주문할때에 적은 copy한장을 받아두었을 것을.

차후의 증거를 생각치않고, 믿고 한 처사가 불의의 손해를 가져온 실례들이다.

다른 빵은 선반에 올려놓으면서 O.K빵은 바닥에 놓고 가기에 화가나서 욕을 해 부쳤더니 써비스를 중단했다…. 한번 협회에 알아보고 항의할 것을.

암만 전화로 주문을해도 물건이 제때에 안오기에 울화가 치밀어서 교환양에게 욕을 퍼부었더니 영영 안오고 말았다.… 상담실을 통하여 다시 부탁해서 해결.

감정의 폭발로 냉정을 지키지 못하고 해결되는 일 거의 없고, 먼지 성내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실예들이다.

제아무리 줄을서도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듯이 한사람씩 차근차근 처리하는 이나라 사람과, 세사람만 기다려도 안타까워 못 보는 우리들.

오늘 요청하면 오늘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와 보통 내일과 내주로 미루고 태연한 저들.

속결도좋지만 때로는 느긋한 마음으로 문제에 임하는 것이 특히 이나라 사람들과 대결할 때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잠시간 사람과 상품에 시달림을 받는 우리는 특히 모든 문제를 증거위주로 대하고 냉정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직면하는것이 이기는 길이며, 건강에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때로는 과연 요 문제로 혈압을 올려가면서 악을 쓸 가치가 있는가도 돌이켜 생각해보고, 돌아서서 심호흡으로 자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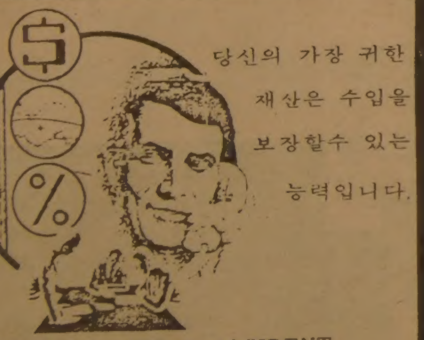
◆상담실 처리상황(5·6월)

유형별	건수	대상별	건수
Information	15	Coca Cola	7
Rebate	12	Metro News	7
Service	7	Dempster's Bread	5
Credit	6	Sealtest Milk	5
Pric Competition	6	Silverwood Ice Cream	4
New Account	3	Neighbour Store	3
Equipment	2	Rosen Dairy Milk	3
Return	2	General Bakeries	3
Payment	2	York Ice Cream	2
Legal Matter	2	Toronto Sun	2
Driver	1	Hostess Chips	2
Sales Tax	1	Others 1 each	11
Employment	1		
Profit	1		
Empty Bottles	1		
5월 계	62		54

유형별	건수	대상별	건수
Service	20	Toronto Sun	19
Credit	18	Neilson's Ice Cream	8
Rebate	10	Dempster's Bread	8
Imformation	8	Neighbour Store	3
Price Competition	6	General Bakeries	3
Equipment	2	Silverwood Ice Cream	3
Legel Matter	2	Metro News	3
New Account	2	York Ice Cream	3
Sales Tax	1	Coca Cola	3
Return	1	Sealtest Milk	2
Payment	1	Hostess Chips	2
Empty Bottles	1	Others 1 each	7
6월 계	72		64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Jack Nicklaus, Looking Good

일 시: 1982년8월2일(월)오전9시
장 소: Richmond Hill Golf Club
참가자격: 회원
참가인원: 150명
참가비: $35(저녁식사포함)
신청접수: 협회사무실(533-7923)
신청마감: 1982년7월5일
준비위원: 조기연. 배경락. 심태섭

시 상
Gross Champion(Annual)
Net Champion(Annual)
Gross 1. 2. 3. 4. 5등
Net A조(89이하)1. 2. 3. 4. 5등
B조(90-99) 1. 2. 3. 4. 5등
C조(100이상)1. 2. 3. 4. 5등
Nearest to Hole
Longest Drive
Most Honest
◇각종공급회사및 도매상들이 제공한 많은 부상들이 있으며 특히 Rosen Dairy, Canada Bread, Silverwood등의 회사들이 제공한 라스베가스·아트란타·아카풀코등 왕복 숙식 권이 매 Par3마다 있음.
◇작년과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Tee-Off time을 사전에 작성, 발표코자 하오니 신청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인환

한국일보

實名예금制 내년 실시

財務部 新規는 1월、既存은 7월부터

株式·會社債등에도 적용

3千萬원이하 出處不問

私債양성화 特別法추진

정부는 私債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83년7월1일부터 은행예금、주식、회사채、국공채등 모든 금융자산의 거래에 대해 實名거래제를 전면실시하는 동시에 가계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綜合所得稅率도 인하、최고세율을 현행76·5%(방위세와 주민세 포함)에서 50%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현재15%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이자、배당등의 금융자산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금융자산거래는 오는 83년1월1일부터 實名化하기로 했다。

所得稅최고率 50%로 引下

利子·配當소득도 綜合課稅하기로

3일 姜慶植재무장관은 私債陽性化를위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이와같이 발표하고 출처불명자금의 實名化를 유도하기위해 「私債陽性化에관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姜재무는 출처불명의 금융거래자금에 대한 實名化를 시기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83년6월30일까지 實名化하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자금(20세미만의 미성년자의경우 7백만원이하) ▲자기회사나 계열회사에 대한 增資(현물출자、해외은닉자금의 반입 포함) ▲長期住宅債券의 買入 ▲銀行株式買入(有償增資) ▲銀行처분不實企業인수 ▲短資會社 또는 相互信用金庫의 설립을 위한 出資 또는 增資 (일정률의 信用保障基金적립조건) 등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일체 불문에 붙이고 이경우이외에는 5%의 특별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3년 7월1일부터 86년 6월30일까지 實名化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히지않는대신 5%의 특별과징금을 물도록하고 86년 7월1일이후 實名化한 경우에는 3년간의 이자를 50%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금출처를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姜재무는 또한 金融資産소득의 綜合所得稅에의 가산과 함께 紙上配當稅도 완화、관련법 제정과 개정안을 공청회등에 회부、각계의 의견을 취합한후 오는 정기국회에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私債陽性化와 관련、▲金融資産 實名化를 위한 特別措置法을 새로 제정하고 ▲所得稅、相續稅등 관련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預·積金비밀보장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법상 예금자의 대외비밀보장은 지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私債의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特別措置法이제정、실시되는 이후에는 私債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지금부터 特別措置法시행일사이에 거액의 금융자산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에따라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私債자금이 投機자금으로 전환되는것을 막기위해 ▲82년7월부터 83년6월까지 사이에 투기혐의가있는 부동산거래에대해 자금출처를 세무조사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가 다시일어나는 소지가 있을때에는 ▲5·18조치에 의한 讓渡稅완화방침을 재검토하고 不動産讓渡所得도 綜合課稅하는 방안을 검토할것이며 필요한경우에는 不動産去來許可制를 발동할계획이다。

또한 최근 재산의 해외도피 사례가 늘어나는것에 비추어 暗달러시장의 단속을 강화하는동시에 재산의 해외도피 벌칙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금융거래 정상화方案

▲實名去來制실시 예금주식국공채등 全금융자산대상 신규거래는 내년1월1일부터, 기존거래는 내년 6월말까지의무화

▲假名거래로서 실명화할때 자금출처조사면제대상 ①83년 6월말까지 實名化하는경우 1인당한도 3천만원 자기회사에대한 투자은행株매입 단자및 상호신용금고 출자 ②83년 7월 1일~86년 6월30일까지 實名化하는 경우 5%특별과징금납부 ③ 86년 7월 1일이후 實名化 3년간 이자수입의 50%포기조건

▲종합소득세율 인하 현행의 76·5%(방위세·주민세 포함)에서 50% 수준

▲예금및 배당소득 전면종합과세 (83년 7월 1일 이후) 주식양도 차익도과세

▲양도소득세 인하조치 (5·18) 재검토, 부동산거래허가제 발동검토

▲부동산양도소득 종합과세검토

▲예·적금비밀보장법 폐지

▲實名化촉진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상속세법 개정

▲거액금융자산 변동에대한 자금출처조사실시 (7월 3일부터 특별법 시행일까지)

▲私債거래전면세무조사실시 (특별법 시행이후)

해설

私債규모 1兆원線

통화량 27%…업자千명

利子소득세 99% 탈세

우리나라 私債규모는 81년말 현재 약 1조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全經聯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시중 私債業者는 1천명내지 1천2백명으로 사채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私債규모는 81년 은행대출의 7%, 통화량의 27%에 해당된다。

8·3조치 당시인 지난 72년 각각 29%와 67%이었던 것에 미루어보면 금융에 있어서의 私債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은행대출금은 72년부터 81년사이에 13배로 증가한데 비해 私債는 3배의 성장에 그쳤다。

그런데 短資會社의 受信은 3조28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신장은 사채자금이 제도금융인 단자회사로 유입、흡수된 것으로 볼수있다。

단자회사가 어느의미에선 기업과·사채업자를 중계시켜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私債규모는 1조1천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私債를 사용하는 기업체수는 전체의 26·3%로 私債는 소수의 기업체에의해 집중 사용되고있다。

기업금융에서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법인기업의 차입금에대한 사채비율은 7·21%、은행대출에 대한 사채비율은 9·3%이다。

사채사용업체만을 본다면 차입금중 사채의 비중은 20·8%로 대부분이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있다。

경기상승기에는 사채차입의 10%내외가 설비투자에 사용되며 특히 중소기업은 사채의 13%정도를 설비투자에 사용하고있다。 설비투자에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사채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것은 중소기업이 은행이용에있어 담보및 신용조건등의 이유로 대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총차입금중 사채의 비중이 10%인 대기업은 9·2%인데 중소기업은 18·9%를 차지하고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일반 제조업보다도 私債의존도가 높다。

私債의 타인자본에대한 비율은 건설업이 4·3%인데 비해 제조업은 3·6%로 되어있다。

사채차용에 있어서도 건설업은 無擔保가 70%를 차지하고있는데비해 제조업은 33·6%를 차지하고있다。

기업보다도 가계의 私債이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저축가운데 私債의 비중은 64%를 차지하고있다。

가구당평균저축액 1백13만8천원의 36%는 은행예금및 유가증권으로, 나머지 64%는 私金融형태로 보유하고있다。

가계부채형태 역시 80%를 私金融에 의존하고있다。

私債는 가계의 저축과 부채의 양면에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가계가 사채를 이용하는것은 재산증식투자금으로 39·3%、주택관련자금 25·9%、채무변제 15·3%가 주종을 이루고있다。

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으로 소득세를부과하게되어있으나 81년 이자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를낸 사채는 총 사채자금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탈세한 것으로 집계되어있다。

"企業·企業人 분리"

金부총리 不實기업、第3者 인수케

金埈成부총리는 3일 앞으로 부실기업은 제3자에게 넘겨 기업자체만을 살리도록하고 중소기업은 기술개발등 自救的노력을 하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이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경제기획원 간부직원、기업체대표、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연구원대표등 1백여명과 가진 경제문제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국제신인도나 사회정책적인 문제등을 감안해서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끌어 왔으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구제금융등은 지양하며 기업과 기업인을 분리、어떤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제3자에게 인수시켜 기업자체만은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 산업구조개편을위해 정부가 특정기업의 문을 닫게하는등 직접개입은 피하고 부실기업의 존폐여부를 그업종내부서 스스로 조정토록하되 자율조정이 불가능한경우는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정리해나가도록 하며 부실기업종사원및 소액투자자는 주거래은행이 그대책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육성문제는 사회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차원서 다뤄나가겠으며 따라서 사업성있고 기술개발등 자구적인노력을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집중적인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11품목 내년 輸入開放

내년부터 향수 아이새도우 헤어크림등 11개화장품의 수입이 개방된다。 현재 화장품은 상공부의 수출입기별공고상으로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되어있으나 특별법인 약사법에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수입자유화폭을 점차 늘려간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화장품수입이 내년1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케된것이다。

"PLO武裝해제 撤收"

아라파트 "아랍國 이동하되 2개大隊 잔류"

【베이루트2日AP=聯合】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레바논정부는 2일 PLO게릴라의 무장해제와 레바논철수에 합의했다고 레바논국영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아라파트PLO의장과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간에 이루어진 합의내용이 PLO게릴라들을 밝혀지지않은 아랍국가로 이동시키되 각2백50명으로 구성된 2개 PLO軍대대를 편성、1개대대는 레바논북부지역에、다른 1개대대는 레바논동부 베카계곡에 주둔시킬수 있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내일 韓日外相회담

李外務、어제東京 도착

【東京3日=宋孝彬특파원】李범석외무장관은 한일외상회담을 갖기위해 3일하오 2시 15분팬암機편으로 일본의 나리따공항에 도착했다。

李장관은 한일외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에관해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안문제인 경제협력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한일외상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생각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5일상오10시 외상접견실에서 외상취임후 처음으로 사쿠라우찌 일본외상과 2시간동안 한일외상회담을 갖고난뒤 이날하오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일본외상과 단독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간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李장관은 또 6일 한일경제협력문제의 관계장관인 와다나베 대장상、아베통산상 및 고오모도 기획청장관을 만나는데 이어 기시、다나까、미끼등 前수상을예방 한일경제협력의 조기타결을위해 협력해줄것을 요청할예정이다。

"南北對話빨리 호응을"

閔조절위장、7·4성명 10周맞아 촉구

南北조절위 閔寬植 서울측공동위원장대리는 3일 7·4南北공동성명발표 10주년에 즈음한 對北성명을발표、『10년전 南北 쌍방은 서울과 平壤에서 남북공동 성명을 동시에발표함으로써 韓半島의평화와안전、그리고통일을 希求하는 南北의온겨레에 커다란기대를안겨줬다』고 말하고 『우리는 北韓측이 7·4南北공동성명의 정신에따라 하루속히 대화의광장으로 나와 우리민족의 장래문제와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하는데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閔위원장대리는 『우리는 7·4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南北대화에서 이루어진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해 이 땅에 평화의 기틀을 확보하고 南北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적 신뢰를 회복키위해 모든성의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北韓측은 南北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7·4성명을 비롯한 南北간의 모든합의사항들을 유린해왔다』고 밝혔다。

◇閔위원장대리

社会漫評

波紋

地平線

60년대의 어느해인가、야간통금 사이렌을 차임·벨로 바꾼적이 있었다。 그 무렵 부쩍 늘던 일본인 관광객들이、한밤의 사이렌을 공습경보인줄 알고 놀란다는 말이 있어、경찰이 생각해낸 窮餘之策중의 하나였다。 물론 한밤의 차임·벨은、아이디어로는 그럴듯 했으나、며칠 가지를 못했다。 ▼그때만 해도 통금은 의당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통금의 마이너스 效果가 여러면에 나타나는 줄을 알면서도、「통금을 없앤다」는 근본대책은 立論의 여지조차 없는듯 했다。 朝鮮시대 5백년、「人定의 전통」이 밑에 깔려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 통금은、그야말로 어이없게 없어졌다。 그리고 내일5일로 통금해제 반년을 맞는다。 ▼서울시경 집계에 의하면、이 6개월동안 강력범은 오히려 줄었다。 작년같은 기간중 42건이던 살인사건이 28건으로、강도사건은 3백90건에서 2백90건으로 감소됐다。 폭력·보안사범과 교통사고가 늘긴했으나、「묶였던 4시간」이 풀린데서 오는 자연스런 추세라는 경찰분석이다。 통금의 단 한가지 功德으로 여겼던 범죄예방효과는 별것 아니라고 증명된 셈이다。 ▼통금없는 6개월의 실적은 참으로흡족하다。 그러나 이싯점에서 정리할것은 정리해두는것이 옳겠다。 그한가지가 통금의 법적 근거－경범죄처벌법제1조의 43이다。 밑도끝도 없이 『戰時 天災地變 또는 기타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내무부장관이 정한者』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합당하냐는 얘기다。 ▼통행의 자유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면、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 그 경우、「우려가 있을때」등의 막연한 전제만으로、범죄구성 요건을 내무장관 명령에 위임한 것은 罪刑法定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이 규정의「야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인가。 日沒에서 日出까지라면、동짓날의「야간」은 14시간 26분이다。 이 긴 시간의 통행을 내무부장관에게 「白紙委任」한 꼴이 되는 것이다。 ▼경범법 제1조의 43은 지금 휴면중이다。 그러나 언제라도 되살아 나올수가 있다。 반면 앞으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럴때의 통금이라도 합당한 법적근거와 절차는 있어야 하지않을까。 통금이 없을때、정리할것은 정리해 두어야 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여름철 특별 세일
—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 기간 :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고급 Noritake홈셑
45%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40% Off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 656－4315 Mrs. 최

實名거래: 7·3措置의 배경·전망

「검은돈」 새出發계기

慣習 뒤엎은 「經濟 혁명」

金融거래 脫稅소지 封鎖

健全한 투자풍토를 誘導

企業재무구조 개선·租稅마찰해소 효과
不動産등 投機우려·外貨도피의 위험도

段階的도입 衝擊막아야

진짜 經濟革命이 시작되었다. 외부에서 충격을주어 기존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정립하자는것이혁명이라면 오늘의 金融관습을 송두리째뒤엎고 새로운 금융질서를 마련하려는 私債양성화방안은 분명 혁명적인 조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에는 혁명이일어나지만 경제에는 혁명은금물로 되어있다. 경제란 여자의 마음과 같아서 소프트터치를 해야 기능을 발휘한다.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의 강도에 비례해서 혼란과 부작용이 따른다. 그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혁명적인 조처를 삼가고있다.

현행 예금비밀보장법의 폐지와 實名去來制의 전면실시를 골자로한 사채양성화방안이 국민경제에 어떤영향을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을 할수없다. 혁명이후의 경제질서는 우리경제가 체험해 보지못한 미지의세계다. 더구나 이조처를만든 경제관료를 포함해서 국민대다수가 큰돈만져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돈의 생리에대해서 소상히 알까닭이 없다.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추리하는수밖에 없다.

우선 이조처를 발표한 재무부는 실명거래제가 실시되면 6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떳떳치못한 자금을양성화하여 새출발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할수있는 소지를제거한다. 세째, 은닉자산을 기업으로환류시킴으로써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한다. 네째, 금융거래가 양성화되고 종합소득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사금융의은닉처를 없애고 사금융을 양성화할수있다.

그래서 거액어음사건의 재발을 막는다. 다섯째, 금융거래가 양성화되어 탈세의소지를 봉쇄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마찰을 최소화한다. 여섯째,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돈놀이보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새로운기업풍토가 조성된다.

확실히 實名去來—사채양성화대책은 많은 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할수있다. 도대체 예금비밀을 보장해서 검은돈이 활개칠수있는 분위기를만들어 놓은것이 소망스러운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이 문제—. 오늘의 경제풍토는 돈많은사람이 고개를 처들고 활보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돈많은 사람은 거개가 떳떳하게 번돈이 아니다. 내노라하는 재벌도 蓄財의 과정을 보면 떳떳치 못한데가 많다. 과거의 납세실적을 보면 오늘의 축재규모를 설명할길이없다. 설사 떳떳하게 번돈이라도떳떳하게 내놓고 쓸수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돈많은 사람은 사회의 질시를 받는 풍조때문에 돈있는 사람은 돈의 실체가 노출되는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서정쇄신이다, 숙정이다, 부조리일소다, 삼불추방이다해서 1년이 멀다하고 돈있는사람을 죄인취급하는 분위기속에서 누가 돈을 노출시키겠는가.

가령 우리 주변에 3천만원·5천만원·혹은 8천만원의 돈(예금 혹은 주식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하자. 서민사회에서는 벌써 이를 질시하고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그런 분위기때문에 張여인사건때는 신분이 밝혀질까 두려워 私債신고를 하지않은 사람이 많았던것으로 알려졌다. 金常起사건때만 하더라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20여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지않은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검은 돈을 비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돈의 기능을 죄악시 해서는 안된다.

돈에 입자가 따로있는것이 아니다. 부정한 돈이라도 그 돈이 은행이나 자본시장에 잠겨있으면 내자동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61년 예금비밀보장법을 제정한것도 바로 그런취지에서 였다.

이제 내자동원을위해 제정한 예금비밀보장법을 폐기하려하고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진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의 섭급한 폐기가 내자동원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의욕을 꺾고 낭비·사치풍조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오늘과같은 풍토속에서 갑작스럽게 예금비밀보장법이 폐기되고 실명거래제가 채택되면 금융거래는 많은 변화를 나타낼것이다.

출처밝히기를 꺼리는 돈은 은행, 단자, 서민금고, 증권시장등에서 빠져나갈것이 틀림없다. 제도금융권에서 빠져나간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된다. 제일먼저 생각할수있는것이 부동산투자, 암달러, 귀금속, 골동품, 그림도 투기대상이 될수있다. 또 실물투기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에서 굴러다니던 돈이 이처럼 부동산이나 귀금속, 골동품시장에 흘러들어 투기자금화하는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불행한 사태라 할수있다. 조처가 발표되자마자 암달러시세가 뛰고 시중에서 금거래가 중단된 사태를 예사로 보아넘기지말자.

뿐만아니라 금융혁명은 외화도피의 위험을 안고있다. 국내에서 발붙일곳을 잃어버린 錢主들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새로운 은신처를 찾게 될것이다.

국내재산의 해외도피는 암달러시장의 단속이나 기타 법률적인 처벌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왕복무역량은 벌써 5백억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1백억달러가 넘는 자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6백억달러가 넘는 무역및 자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밭에 물스며들듯 재산이 해외에 도피되는것을 무슨수로 막을 수 있을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민경제는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꼴이 된다.

지금 일부기업인은 자기돈은 다른데 빼돌려 운용하고기업은 은행돈을 빌어 경영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제 자기돈은 해외에 빼돌리고기업자금은 차관으로 마련할수도 있다. 日本이 이른바 그린카드제도란것을 도입해놓고도 실시를 보류하고있는 것은 그토록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있으면서도 외화도피를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다.

또 지하경제는 私債만이전부가 아니다. 탈세·수뢰·암시장·매춘행위·도깨비시장·밀도살…사람의 지혜가 발달함에따라 지하경제의 영역은무한히 개발된다. 실명 거래에 따라 금융거래가 노출되면사채는 잠적하겠지만 새로운지하경제 범죄유형이 개발된다.

새로 개발된 지하경제는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위해 현찰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처럼 현찰, 특히 고액권수요가 부쩍 늘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금융관습의 변화는 정부시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내자원의 중대한 낭비가된다. 실명거래제의 성급한 도입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이 모든 부작용을 억제하기위해 정부는 새로운 특별조치법의 제정, 세무조사의 강화, 외환관리의 강화, 암달러시장의 단속등 법률과 행정규제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수있듯이 경제란 법적인 제재나 행정규제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다. 규제나 통제는 낭비를 수반한다. 수출금리의 인하는 행정규제에의한 낭비가 따른다해서 금리까지 모두 단순화 하지 않았는가.

경제는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해야한다. 국민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이 제도개혁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경제는 日本에서 10년을두고 검토하던 부가가치세제를 갑작스레도입하여 적잖은부작용을 경험한적이 있다. 77~78년의 과열경기는 얼마간 부가가치세에의해 자극되었고 오늘도 말썽이 꼬리를 물고있다.

실명거래제도 마찬가지. 日本은 5년여의 검토끝에 지난 80년 그린카드제도입을 법제화하고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84년부터 시행키로했으나아직도 논란이 비등한가운데 시행이 보류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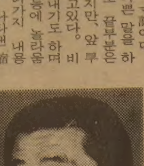
실명거래제의 도입을 반대할사람은 없다. 다만 충격이 너무크기때문에 점진적 단계적도입을 권장하고 싶다. 다행히 국민의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니 기대를 걸어본다. 경제정책을 조급하게 서두르지말자.

【朴炳潤기자】

아침에

이 엄청난 投藥

「큰손經濟」…失機땐 모두 自生力 잃는다



朴宇熙 〈서울大 교수〉

『참 부럽군요. 日本에서는 이만한 정책변경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여기서는 모두들 한결같이 환영을 하고있으니 잘 되어가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흘전 공항에서 이번 6·28經濟活性化조치에대해말한 어느 日本 경제학자의 寸評이다.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習慣이 있으므로 끝부분은 인사치레에 불과하다하겠지만, 앞부분은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있다. 비웃기도 하고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며 자기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하는, 여러가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마디로 나타낸 縮語로 생각할수있다. 이 말은 결국, 소수인의 머리속에 생각나는 想念을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채 비밀히 테이블 위에 그려 본 經濟政策이 다행히도 현실과 꽉맞아 떨어질수만 있다면 플라톤이나 케인즈가 再現할것 처럼 얼마나 신통하고 가상할가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할수있다.

도대체 어떤 편이 나을까. 일본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디서든 밑에서부터 상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傳統과 慣行이 형성되어있고, 그래서 정책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한번 결정되면 아무도 번복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향이있다. 하나 하나씩 생각하고 다지는 습성때문에 빈틈이 없지만, 한편 겉보기로는 小心스러울 정도로 단계적이다. 革新과 革命도 나타난 결과로는 현상을 타파하는 혁신과 혁명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습이 익혀지는것과 같은 오랜 시간과 同化,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을 꼭 겪고 지나가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는 한국경제는 언제나 적동적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豫想不許의 요지경이 아닐수 없으며 불안하고 조심스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一刀兩斷의것이 환영받는 습성에 젖어있고, 어느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비를 맞아야만 속시원한 느낌을 지니며 섭씨 10도정도의 常溫으론 속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의 6·28조치도 이때까지의 우리습성을 어쩌면 그렇게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라 말하고있다. 지난 2~3년간 계속 지켜오던 經濟安定政策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으니 한국을 하늘같이 알고있던 후진국의 여러 경제학도들도 이제 의아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건이나 사람이 바뀌어 정책이 바뀐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같은 천재는 모르거니와 그렇지도 않은데도 소수인의 생각만이 옳다고 한 나라경제를 마음대로 쥤다, 폈다하는 作爲에 이 일본인은 놀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같은 경제현실이 만들어질때도 소수인의 머리만으로 된것인데, 이것을 차분히 하나하나씩 풀고 풀어나가는 끈기와 지혜를 지니기는커녕, 이번에도 똑같은 非常措置를 취하고 있으니 이제는 놀라움도 만성이 되어가고있는 기분을 이외국인들도 가지고있는듯 보여지는것이다.

혹자는 이번의 경제정책을 韓國版레이거노믹스라고 말하고도있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 또는 供給사이드경제정책이라면 하나의 經濟哲學으로 다져져서 온갖 시책이 여기에 맞게, 일관되게, 또 장기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의 우리경우는 그렇지못하며, 지금의 불황을 참지못하여 한번 해본는격의 임시적인 성격이 짙게 풍기고있다고 보고있다. 2~3년정도 죄고 보니 여러군데서 아우성이라, 레이거노믹스가 미국에서 성공했는지 아닌지의 결과도 볼 겨를없이 또 레이거노믹스를 조롱하는일본의성공사례를 뒷전에 두면서까지, 경제의 숨통을 좌지우지하고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경제사정이 불황인지, 경기침체인지, 경기회복인지, 나아가 景氣循環的 週期의 한 과정이아니라 구조적 불황의 성격을 띤것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이 분명치 않은채 지금같은 용감성이 발휘된것은 더욱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일반 기업인이나 서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죽을지경이니, 先機했다간 자생력을 아주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번과같은 사상 최대의 金利引下와 法人稅引下등 혜택을 기업에 부여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다시말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이 구조적이든 경기순환의 일과적이든간에 불황에 가깝고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와 반대로 정책당국자는 지금 GNP가 괜찮은 정도로 계속 신장되고 있고 수출도 어느新興工業國에 못지않게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말을 통계를 들어가며 해설하고 있으니 이를 외국인들이나 서민들로선 당혹감을 금할수 없다는 것이다.

불황에는 불황대책이, 경기회복기에는 그에 걸맞는 대책이 있어야하고, 이 둘은 서로 달라야할텐데 상황인식에 있어서조차 이렇게 상반되니 사실 걱정이 안될수 없는것이다.

만일 정부의 말대로 지금 GNP가 늘고 있고 수출이 그래도 잘되고 있는 편이라면 종전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어 나가도 될 것이고, 좀 미흡하다면 약간의 경기부양책으로도 족할 것인데 왜 이번 같은 다목적인 一大改革이 필요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세계경기전망이 아직불투명하므로 수출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이 힘들며 따라서 시기를 보아가면서 다른 나라보다 보조를 한 발짝만 앞서는 정책을 쓰는것이 현명할 터인데도, 무엇이 급해 그렇게도 많은 돈을 쏟아가며 內需振作으로 소비와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着想을 전개하는지 이 일본인은 갸우뚱 머리를저어보는 것이다.

金利政策이나 租稅政策은 모두 제로·섬 정책(零和政策)이며 국내의 일부분을 살리기 위해 다른 부분을 그만큼 희생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소폭으로, 또 꼭 필요할 때외에는 쓰지 않아야하며 대신 零和政策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공한 일본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소수의 머리만으로 짜는 경제정책은 그 사람들의 머리가 몇천만명이나 되는 다수의 머리보다 낫다는 평가를 긴 歷史를 통해 입증될수 있을때에야만 합리성이 있는 법이며 지금같은 복잡한 세계경제구조와 국내경제기구에서는 제2의 케인즈가 나오지않는한, 모두의 합의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零和의 世界를 현명하게 처리해가는 방법이 가장 나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껏 우리는 零和政策만을 너무 오래 집행해 왔고 이것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엄연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될 단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생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방안의 연구, 희생보다 창조의 원천을 내부에서 찾는 방안의 차분한 연구와 실천이 지금보다 더 아쉬울 때가 다시 없다하겠다. 위의 日本人의 말이 1% 올린 것은 아니지만 金利의 1%변경에도 머리를 싸고 생각하고 또 협의함으로써 正道를 찾는 일본인의 태도와 성실성은 우리가 배워 마땅한 것이다.

證市混調 去來는 活氣

私債陽性化방안이 발표된 週末증권시장은 투자자들의 전망이 엇갈려 混調를 보인가운데大量去來가이루어졌다.

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6·28경기활성화조치」로 金利와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등 큼직한 好材에힘입어 폭발장세를보이던 株價는 이날 開場初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私債陽性化와 관련한 實名去來制실시와 종합소득세제개편방안」발표후 「사자」와「팔자」가 동시에 쏟아져나와 대량거래가 이루어졌다.

午前場만열린 이날 증시는 1천6백36만주가 거래되어 거래대금만도 1백16억1천6백만원에 달했다.

종합주가지수는 0·8포인트가 내려 1백74·4를기록했다. 증시의 이같은 혼조는 주식등 유가증권거래의實名制도입과 배당금의 종합과세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냐에 전망이엇갈렸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蘇, PLO·시리아에 軍事원조 제공

【모스크바2日外信=聯合】소련의 한 중동문제고위전문가는 2일 모스크바가 이스라엘의 『야만적』레바논침공에 대항하고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에 충분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있는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蘇과학아카데미의 중동문제연구책임자인 예프게니·프리마코프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西베이루트를 점령하려한경우 소련이 어떻게 행동할것인가』라는 질문을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內務委등 召集협의 내일 3黨총무회담

民正、民韓、국민당은 5일상오 총무회담을 열고 內務委등 국회상임위소집문제와 3黨대표회담추진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3일 총무회담에서▲西小門洞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및 지하철전반에 대한 안전사고예방대책과 관련, 국회內務委를 즉각소집하고▲6·28경제조치및 그後續조치를 다루기위해 국회 재무·상공·건설위를, 또 李範錫외무장관의 美·日방문과관련하여 외무위를 열것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私債陽性化등 논의 국민黨, 財務委요구

국민당은 6·28조치에 따른 경기활성화대책의 後續조치·私債陽性化문제를다루기위해 국회 財務委를, 서울西小門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및 안전대책을 따지기위해국회內務委를 조속한 시일안에 열것을 民正黨측에 요구키로 했다.

金鍾哲국민당총재는 3일 특히 재무위소집에 언급『정부의 6·28조치는 특혜금융 및 인플레유발 가능성, 소득불균형문제등 시행과정상의 부작용이 많이예상된다』면서 국회재무위에서 이러한부작용을 막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利子稅도 낮춰야" 短資社·은행 自律化를"

全經聯 주장

全經聯은 1조1천억원을 훨씬 웃돌고있는 私債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단자회사의 완전자유화, 市中銀行의 自律化예금과 유가증권거래의 實名化와 함께 이자소득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全經聯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한국의 私金融市場에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금융면에서 ①단자회사의 운영을 완전 자유화하고 ②시중은행의 경영을 자율화하여 앞으로는 대출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며 ③통화정책은 우리나라 금융구조와 실물경제에 알맞는 방향으로 신축성있게 운용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세면에서 ①私債에 대한 세율을 법인실효세율정도로 내려 분리과세하고 ②사채자금의 원천포착을위해 예금의 實名化유도와 주식등 유가증권의 기명화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私金融의 제도화와 紙上配當稅의폐지, 배당소득에대한 이중과세의 완화, 주식배당에 대한 綜合所得不算入, 이자소득의 완전종합화등 장기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暗달러 시세 暴騰·品貴

시중의 암달러시세가 갑자기 치솟고 품귀현상을 보이고있다. 관련업계에의하면 2일 상오까지 1백달러에 7만9천5백원에 거래되던 암달러가 하오부터 갑자기 8만2천원으 2천5백원이나뛰었다는 것이다.

또 3일 상오에는 1천원이 오른 8만3천원으로 오르면서 팔려는 물량도없다는 것이다. 암달러의 시세급등과 품귀는 실명예금제실시에 영향을 받은 금융투기현상으로 풀이되고있다.

하반기豫算재조정

政府·民正, "稅收결함…緊縮불가피"

政府와民正黨은 오는 5일 상오10시 民正黨 중앙당사에서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6·28경제 活性化조치에 따른 금년도 下半期예산 운용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3일黨職者 회의에서 금년도 稅收결함이 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 이에대한 緊縮예산 운용을위해 金俊成부총리를 출석시켜 黨간부들과 협의를갖기로했다.

金晧泰대변인은 정부가 지금까지 각부처별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6·28경제 활성화조치가 마련되기 이전의 지침에 따른것인만큼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

內外動靜

▲民韓黨의 黃山城의원은 아시아재단초청으로 미국법조계및 여성계시찰을위해 3일낮 출국.

메아리

盜掘의 내력

도굴범을 호리꾼이라고도 부른다. 이말을 따져보면 한·일 합성의 묘한 속어다. 파낸다(掘)는 일본어「호리」와 순수한 우리말인「꾼」이 합해진것이다. 도굴범의 내력에 대해 아주 시사적이란 생각이 든다.

쇄국을 고집했던 흥선대원군은 그의선친 南延君묘소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등에의해 발굴되자 노여움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洋夷斥和의 결의가 더욱 극렬해지고 천도교탄압의 채찍을 더하게한 원인이었다.

이 도굴사건은 실패했지만 일본의 식민정치가 시작되면서 이땅의 귀중한 문화 유산인 古墳들은 일본 도굴범의 매력적인 표적이 되었다.

총독부 기관지인「朝鮮」에 실린「고분발굴만담」을 보면 우리「古墳의 慘狀」이 얼마나 심했나를 알수 있다. 일본인들은「일확천금을 꿈꾸며 금사발이 묻혀 있다든가, 황금닭이 묘안에서 운다는 전설이있는 고분을 골라 마치 금광을 파듯 헤쳐 갔다. 심지어 그 지역에 주둔했던 헌병까지 합세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유명한 오오꾸라·컬렉션도 일찌기 일본골동상과 호리꾼을 조종하여 모아 들인것이다. 특히 일본 고대사와 관련이 깊은 가야문화권에 눈독을 들였다.

일본인들이 저지른 고분도굴의 악행이 그대로 이어져 계속 성행하고 있어 분노를 억제할수 없다. 신라의 왕릉을 비롯 고려의 崔瑩장군, 임진왜란의 명장 權慄장군의 묘소도「우리 손」에의해 도굴 당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고분군은 도굴범의 손길이 안닿은곳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버렸다. 山淸과 尙州의 가야고분군이 쑥밭처럼 되었고 迎日에있는 통일신라시대의 積石고분 1천여기도 완전히 도굴당한 상태다. 新安의 해저유물은 문화재관리국이 건져낸 숫자에 가까울만큼 많은유물이 도굴되어 시중에 몰래 나돌거나 일본등으로 빠져 나갔다는 추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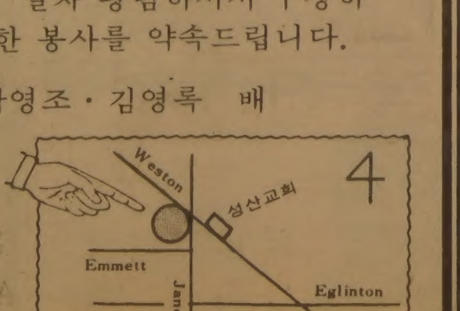
도굴이라는 惡의 손은 서울의 주택가 古墳에까지 뻗쳐왔다. 사당동에있는 효종·현종때 영의정의 묘소가 파헤쳐진 기막힌 참상이, 엊그제 드러났다 (한국일보3일자11면).

우리 역사를 좀먹는「호리의 惡」은 어떻게든 뿌리가 뽑혀야한다. 문화재 수집가들은 우선 출처가 뚜렷하지않은 유물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겠다. 문화재는 민족공유의 자산임을 잊지 말일이다.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 뽕 · 냉 면
짜장면 · 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신오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서울식품 서부>
인사말씀
저희 서울식품 서부지점 개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보답코자 오는 7월24일(토)까지 냉면(2인용)을 Free로 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구경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철저한 봉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김영록 배
1391 Weston Rd.
☎ : 243－9544



여름철 특별세일
지금 당신은 가장 싼 값으로 신용있는 밍크를 구입할 수 있읍니다.
저희는 자체 공장시설을 갖춘 50년 역사의 회사로써 쇼우·룸을 갖추고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단, 오셔기전 약속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Sincere Service to Sincere people
-Trade-in 가능합니다.
-옷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읍니다(repair, clean등)
-온갖 종류의 밍크를 취급합니다(model)
1978 Weston Rd. 정성주
(로렌스에서 one block 북쪽)
☎ : 241－8091, 241－3952

휴가는 自己와 만나는 시간

기계적삶 벗어나 에너지再充塡기회로
「꼭 여름에만 가려고 서둘지말고 여유를

휴가란 떠나는일이다。1년에 한번은 일상의 모든것에서떠나 그야말로 푹 길을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보다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내일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다。휴가란 그냥 놀기만하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다。새로운 걸 이루어야하는 창조의 시간이다。이를 위해선 새로운 눈、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그래서 우린 떠나야한다。헌옷을 벗어야 새옷으로 갈아입을수 있기때문이다。

공간적으로 집을 떠나야함은 물론、정신적으로도 떠나야한다。같은 길도 출근길에 쫓겨보는것과 휴가때 한가로이 거니는 길과는 그느낌부터가 아주 다르다。이게 바로 창조의 근원이다。휴가란 그래서 꼭 낯선데、먼데를 가야하는 것만은 아니다。정신적으로 떠날수 있다면 어디라도좋다。일상의 기계적인 사고、정신세계에서 떠날수 있을때 비로소 우린 권태로부터 해방될수도있다。

훌훌벗어던지고 떠나는거다。성난얼굴、짜증난 얼굴일랑 다 벗어두고 떠나야한다。일상의 생활에 찌든 자기를 떠나 평화롭고 여유자적한 원래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것이다。사실 휴가란 자기를 떠나 자기를 만나러가는길이다。생활에 쫓겨 오래 잊혀진 자기를 찾아、자기를 만나러가는 길이다。바쁘게 달리는 매일의 생활속에 우린 자기를 잊기가 일쑤다。어딜 무엇때문에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쫓겨만 간다。이게 곧 자기상실증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이다。거의 마비된 상태다。휴가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해준다。자기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게해준다。이게 곧 휴가의 본질이다。

여름하늘 구름처럼 훨훨 떠나는거다。휴가란 자유로와야한다。어느 누구의 구속도 제재도 벗어나야 한다。우리의 하루생활은 거의가 반구속 반강제의 연속이다。중추신경은 마치 팽팽한 밧줄처럼 긴장일색이다。

이걸 풀어주는게 곧 휴가의 기능이다。그래서 휴가란 예약도 물론 계획마저도 없어야한다는게 원칙이다。그자체가 우릴 구속하기 때문이다。충실하려다보면 그땐 또 하나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만다。기차시간에 쫓겨 뛰지도 말자。놓치면 다음 차로 가고 그마저 없으면 딴데로 가는 것이다。기차도 내가 정한 시간에 떠나는게 휴가의 특권이다。예약된 숙소에 들기위해 허둥대다보면 이건 이미 휴가가 아니고 노동이다。휴가란 가벼운 드림이 동반되어야한다。모든게 예정대로 딱맞아 떨어지는 일상생활에 중추신경은 식상해있다。조금은 신비스럽고、조금은 예기치못한 일이 벌어질것같은 가벼운 불안과 호기심이 곧 휴가의 액센트다。숙소를 찾아 황혼길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도 객수의 정취를 돋우는데 그지없이 좋다。약간은 서글픈듯한 그런 기분일뿐이다。

이럴때 우린 철학적인 기분에 젖게 된다。이런 기분없는 휴가란 삭막할뿐이다。정해진 차를타고 예약된 숙소에서 자고、또 다음행선지로 가고… 이건 출장이지 휴가는 아니다。

그리고 휴가는 뭐니뭐니해도 즐거워야한다。그러기위해선 내가 하고싶은걸 해야한다。누구 생각할것없다。피해만 안준다면 남을 의식해선 안된다。여름엔 해수욕쯤 다녀와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미 휴가는 아니다。휴가란 체면의 노예도 아니요、그렇다고 남의 눈을 귀를 즐겁게해주기위해 가는건 아니기때문이다。

휴가는 봉사활동이 아니다。그점에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요즈음은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가 붐을 이루고있다。그래야 단란한 가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않다。그래서 억지춘향을 하는 가장도 있지만 솔직이 이건 문제다。가족은 동지적이면서 무척 이질적 집단이다。칠순 할머니에서 세살짜리 꼬마까지가 이 집단이 야외휴가활동을 함께 할수 있는 일이란 거의없다。어딜 가든 어느 한쪽은 희생되어야한다。봉사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그게 좋다면 그런대로 좋다。하지만 그건휴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봉사라면 주말을 이용할수도 있다。휴가란 어느 누구도 불편해선 안된다。그러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가는게좋다。

휴가때만은 가족과 함께라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한다。고급비치 호텔에서 해맑은 얼굴을 한 청소년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걸보면 난 그만 울고싶다。애들은 캠프를 가야한다。별을 보고 나엽에 덮혀 자야한다。그래야 시가 생길게 아닌가。휴가란 사치도 아니요 쇼도 아니다。그저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일인줄 알지만 그건 천만의 오해다。워낙 가난하게 살아온 탓으로 즐거움을 돈으로 계산한 부모의 무지요 오해다。돈 많이 쓰고 멀리 가는게 즐거운 휴가란 생각도 이제 버려야한다。좋은 옷을 입어야하고 사람마다 카메라를 메고 가야하는건 전시장에서나 할일이다。휴가란 자기에게 맞게 가야한다。빚내서 가는 휴가라면 갔다와서 후회만 쌓이고 오히려 역효과다。멀리만 가면 좋은줄알고 무리한 계획으로 강행하다가 막상 끝나고돌아오면 병이 난다。신체적 컨디션도 생각해서 가야한다。심기 일전하여 일을 시작해야하는판에 휴가가 끝나고 병석에 눕는다면 이건 비극이다。사실이지 휴가병에 걸린 사람이 참많다。과로에서 시작하여 각종 계절전염병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모든건 자기에게 맞춰가야한다。

그리고 휴가란 모든 사람이 다 가야하는것도 아니다。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그리고 휴가는 꼭 여름에 가야하는것도 아니다。아껴두었다 가을에、혹은 겨울에 가는것도 좋다。그때까지 휴가가 남았다는 기분에 한결 마음 푸근하다。그 자체가 곧 휴가가 될수도있기 때문이다。휴가란 내가 즐기는것이지 결코 휴가의 노예가 되어선 안된다。

李時炯 (고려병원신경정신과장)

權力의 信賴회복 절실

法의 공정한집행·意識개혁 先導집단필요

韓相一교수、「사회발전과 의식구조」학술대회서 발표

정부는 정의사회구현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한탕주의」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國民大 韓相一교수는 2일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사회연구소주최「사회발전과 의식구조」란 학술대회에서「의식구조 정립을 위한 현실적 과제」란 발표를 통해 정치권력의 신뢰회복등 정의사회구현을 저해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韓교수는 먼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성실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사회윤리가 정립되어 있고、노력에 대한 대가가 정의롭게 분배되고、신뢰를 바탕으로한 민주적유대가 이루어진 사회여야 하는데 60년대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로 많은 부조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신뢰회복、制裁와 참여의 조화및국민의식개혁을 이끄는 선도집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교수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리현상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령있는 사람과 배경 좋은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아 출세하고 권력과 재화만 있으면 된다는등 가치기준의 混亂와 소득분배의 불균형。韓교수는 이로인해 생기는 불평등의식、계급의식및 패배의식은 국민의식을 기형화하는 구조적 원인이된다고밝혔다。

특히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부조리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팽배、「한탕주의」 의식구조가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연고 정치권력과의 유착등이 소득분배의 중요한 변수로작용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물들어 있다는 뜻을 담고있다。

韓교수는 이같은 병리적 현상을 타파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력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사회에 표출된부조리와 부패 비리는 적인 사건에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은것이 거의없었고 이에따른 권력엘리트의 처벌을 외면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의식속에 정치 그자체를 죄악시하는 풍조와 냉소주의、권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좌절감과 같은 것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韓교수는 정치권력의 신뢰회복과 함께 적게는 교통질서 위반에서부터 크게는 권력형 부조리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制裁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참조적 정신과 책임을 가지고 의식개혁운동에 참가하는 제재와 참여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의식구조의 정립은 사회저변에서부터 어 올라올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전체의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韓교수는 의식개혁 운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을 사회저변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매개체인 先導집단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렇다고 官主導의 구조로부터 독립돼 자체의 자율성을 지닌 민간집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국민운동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韓교수는 주장했다。【日】

「휴가병」을 조심하자

—즐거운 나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즐거운 여름휴가。그러나 휴가철엔 각종 소화기병과 피부병、눈병、귀병등 이른바 휴가병으로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많다。여름휴가철에 부쩍 늘수있는 휴가병의 정체와 치료、예방법을 알아보았다。

〈도움말=▲韓泓一·梨大의대피부과교수 ▲金尙敏·慶熙大의대 안과교수▲文一榮·서울大의대 이비인후과 명예교수▲閔炳奭·가톨릭의대 내과교수〉

여름은 무더위로해서 대뇌를비롯 내장의 기능이떨어지기쉬운 철이다。한여름 피로해지기쉬운것은 이때문。

이런 뜻에서 여름휴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한여름 휴가없이 고된일을 계속한 사람들에게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철에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것은 여기에 있다。

특히 여름휴가는 도시노동자의경우 자연과접해 몸과 마음을 함께 쉴수 있는 좋은기회가된다。따라서 여름휴가는 개인의건강은 물론 작업능률을 높이는데더없이 큰몫을한다。

하지만 여름휴가가 반드시 좋은면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여름휴가를 잘못 보내게되면 급성위염과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병과 피부병、눈병、귀병등 이른바「휴가병」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수있기때문이다。

이렇게되면 휴가후 오히려 건강을 잃어 직장의 작업능률이 떨어지기까지 한다。이같은 결과는 대부분 직장이 계획성없이 짧은기간에 집중적으로 휴가를실시하는데다 휴가를받은 사람들이 무리한 휴가계획을 짜고 건강관리면을 등한히 하는데서 비롯된다。

휴가병 가운데 두드러지는것은 여러가지 소화기병이다。무더운 여름철은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데다 놀이터에 한꺼번에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위환경이 불결해지기 때문이다。여기에 정신을 놀이에 팔다 보면 영양 섭취가 소홀해지기 쉽고 수면부족상태마저 일으키게 된다。

또 불규칙한 식사에 밥맛이 난다해서 마구 먹다 보면 과식하기도 쉽다。휴가후 배앓이와 설사、복통등으로 해서 고생하는 일이 많은것은 이때문이다。휴가후 맹장염(충수염)과 췌장염 환자가 눈에 띄게 느는 현상이 있는것도 여기에 있다。휴가후 이질환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경우 증세가 심하면 생명을 앗기까지한다。

◇물가와 따가운 햇볕에 나갈땐 피부에 올리브油등을 바르면 피부가 상하지 않는다。

生水·생식피하고 過食말아야

직사光線 오래쪼이면 피부병 걸려

물놀이 음식은 물기가없는것으로 조금만 장만토록 한다。물고기 특히 조개류는 날것을삼가는것이좋다。

한국의 물은 물맛좋기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여름엔 자연수를 그대로 마시지 않는게 좋다。끓여 먹도록 한다。

땀을 많이 흘린경우엔 수분공급에 신경을쓴다。이땐 과즙이 효과적이다。휴가후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꽤있다。피부병가운데 가장 흔한것은 일광화상。갑작스럽게 강한 직사광선을 오랜시간 쬐는데 원인이있다。피부를 햇볕에 서서히 노출토록한다。또 모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곤충에 물린다든지 쏘여 피부병을 일으킬수도있다。

일광화상을 입었다든지 벌레에 쏘이고 물렸을땐찬찜질이 좋다。얼음이나 찬물에 깨끗한 수건을 담갔다가 꼭짜다음 찜질을 하도록한다。가려움증이 심하면 카라민로션을 바른다。외출을 할땐 외상에 대비、간단한 소독약과 가제등구급약을 준비한다。

물놀이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후에 한다。식전과 식후의 물놀이는 피한다。또 몸에 부담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도록 한다。20、30대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오전에 1~2시간、오후에 2~3시간을 넘지않도록한다。어린이와 노인은건강하다해도하루2~3시간을 넘지않는것이좋다。

물속에 들어가있는 시간은 물의온도(水溫)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은이라해도 30분을넘지않도록한다。

여성의경우 불결한 곳에서 물놀이를하면 대장균과 그밖의 잡균에 의해 요도염과 방광염을 일으킬수 있어 조심해야한다。

눈병과 귀병도 휴가후에 올수 있는 흔한 병이다。특히 여름엔 아폴로눈병으로 불리는 유행성각결막염이 크게 유행할수있어 조심해야 한다。

귀병은 만성중이염등 귀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물놀이 이후、세균등에 감염、악화하는수가 많다。전문의와 상의토록한다。

마음껏 즐겨보자는 생각만으로 계획을 무리하게 짜게되면 휴가후 피로가 남게된다。휴가계획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즐길수 있도록 짜되 정신노동자는정신적인 휴식을、육체노동자는 육체적인 휴식을 갖도록한다。휴가후 피로가 심하게 남아있으면 하루정도 푹쉬도록한다。【李光榮기자】

海外토픽

담배피면 性慾감퇴

★니코틴많을수록 더욱 심해

니코틴함유량이 높은 담배를 단2개비만 피워도 남자의 성욕이 크게 감퇴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리처드·헤이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수를 주축으로한 연구팀은 최근 니코틴 함유량이 높은 담배를 피운 사람들、그리고 담배를 피우지않은 그룹등 3부류로 나누어 흡연후 포르노영화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남자의 성욕감퇴여부를 조사한결과 함유량이 높은담배를 2개비피운 그룹에서만 감퇴현상이일어났다고 보고。

헤이건교수는 또 성욕감퇴와 함께 남자의 욕구가 절정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관찰한데 불과하다고 지적。

【텔러해시(美플로리다州)=UPI】

사탄숭배 風聞곤욕

★美食品회사서 3명提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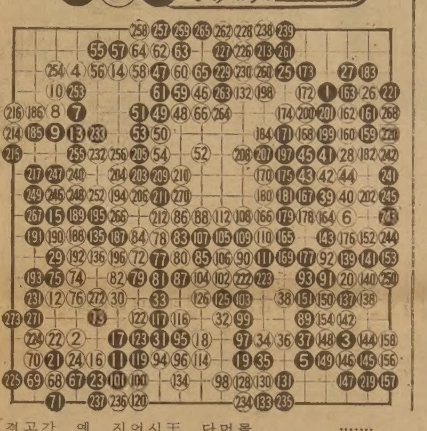
대규모 식품및 세탁사업을 하고있는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회사는 최근 미전역에 이회사가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자 이를 진정시키기위해 혐의자로 보이는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이회사 대변인 빌·듬슨씨는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을통해 자기회사간부 한사람이 TV대담쇼에서 회사의번창을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사탄을 섬기고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팜플리트가 시중에 돌고있다면서 회사간부가 그런 대담쇼에 출연한적이 전혀없다고 주장。

그러나 팜플리트배포혐의로 법원에고소된사람은 자기는 신문기자의 인터뷰요청이 있은후에야 그루머를 알게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아틀랜타=UPI】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제 13 71 名人战 挑战5番棋



도전자 막판에

第2局總譜274手完白2집반勝

白(名人)曺薰鉉〈2勝〉

黑(挑戰者)徐奉洙〈2敗〉

(각5시간·덤5집반)

마침내 도전자는 연2패로 막판에 몰리게 되었다。지금상황으로보아 나머지 3국을 전승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얼마전、똑같이 막판에몰린 王位戰을 타이스코어로 만든것은 역시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준일。어쩌면 이것으로 재기의 기회를 살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회를 그다려보기로 하고 예에따라 이바둑을 대충훑어본다。

포석전에서는 제1국과같이 도전자가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판을리드하고 있었다。특히 상변에서 名人이 과격한수를 두어 黑의필승이 예상되었다。白46을 60자리로 두칸만벌렸더라면 지구전의양상이었는데당장 黑47의 통렬한침입을 당하여 名人은 兩分된 白을 떠안고 절대적인 고전에 빠졌던 것이다。

그런데 좌하白馬의 공격에서 여러차례 절호의찬스를 놓쳤고 더우기 黑91로 96자리를 지키지않은탓에 白94이하를 당하여黑은 일순에 열세에몰렸다。그뒤 白138(140자리에 지킴것)으로 이 과하여 黑의맹공을받고 우변이깨어져 승패놀음이었는데 黑197(230에넘어가야 했다)의패착으로 끝내기에서 역전패하고 말았다。

8…68。113…80이음。115…21。27…21。121…21。124…68。3。218…146。251…92이음。269…26이음。274…8이음。소비시간 白=4·57、黑=2·44【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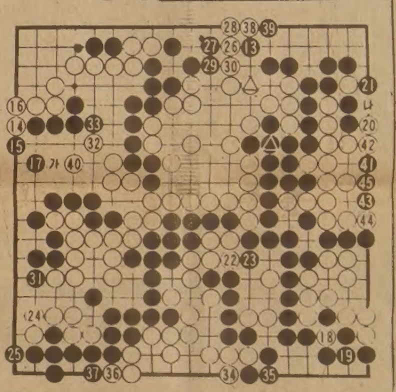
제 13 71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13譜(213~245)

白(名人)曺薰鉉〈-勝〉

黑(挑戰者)徐奉洙〈-敗〉

(각5시간·덤5집반)



이바둑은 결국 黑이 덤에걸려 2집반을 분패하게 되었다。

전보에서 黑이 두차례나 실수를 범한 때문이지만 그중 결정적 패인은 ▲표자리를 이은데에 있었다。이수는 어디보다도 白30자리에 뛰어들어 상변黑을 최우로 관통시켜야 했다。白이 잽싸게 △표로 늘어둔뒤에 黑13은 이 자체가 공배를 당한 것이어서 견디기 어려울뿐더러 뒤따 白38까지의 활로 기를 허용하여 黑의승리는 가망이 없어졌던 것이다。

名人은 안도의 한숨을 몇번 섞어서 내쉬었다。그리고 기록계 朴相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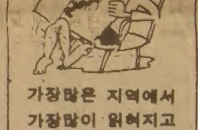
挑戰者 2집반敗

초단이 초시계를 움켜쥐며『나머지 5분입니다。초를 읽겠습니다』하자 이에 쫓기듯이 좌변을 白14、16으로 젖혀이었다。권리와도 같은 선수끝내기다。

그러나 국후에는『白14에 앞서 40자리에 뛰어들어 黑「가」를 응수시키는 것이 유리했다』는 중론인데 名人은 아마 이것으로도 승리는 부동이라고 확신했는지 모른다。

도전자도 그제는 패배를 인정한때문인지 2시간반이나 여유가있는데도 덤덤히 속히 두어갔다。黑31은 유일한 곳이고 白40이 마지막 큰곳。

黑41이하의「빅수」는 白「나」면 黑의집이 한집 줄기때문에 3집내기며 이뒤는 거의 필연적인 한집내기。이에 이르러 승부는 바랄 도리가 없게 되었다。白46부터는 총보로 미룬다。【一凡】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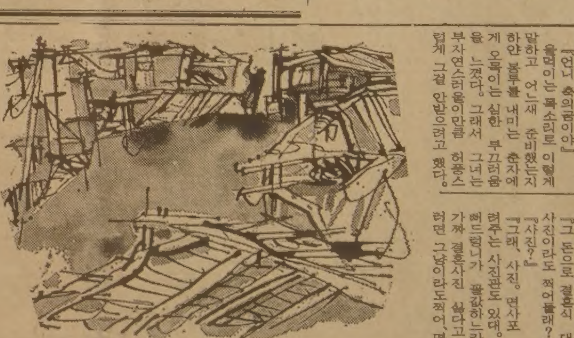
응달 ㉞

짐을 챙기면서 오목이는 춘자에게 그동안의 밥값을낼까말까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춘자가 자기를 부러워한다고 생각될수록 위로금 겸해 얼마간 내놓아야할것 같긴한데 손은 조막손이가 된것처럼 자꾸 안으로만 오그라들었다。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거기서 조금이라도 떼어낸다는게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팠다。

이런 오목이의 속셈을 들여다본 것처럼 춘자가 선수를 쳤다。

『언니 축의금이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어느새 준비했는지 하얀 봉투를 내미는 춘자에게 오목이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그래서 그녀는 부자연스러울이만큼 허둥스럽게 그걸 안받으려고 했다。



『너 미쳤니? 그동안 밥값만해도 어딘데?』

『언니가 정 밥값 밥값하면 이건 그동안 언니가 내 식모살이 한 값이야 밥값 내는 식모도 있답디까?』

『미안해 춘자야。고맙게 받을게』

『얼마 안되지만 언니 유용하게 써야한다』

『그래、그래 밥솥이나 밥주발이나 뭐 그런걸 살게』

『싫어 그런 건 내 돈 없어도 다 사게 돼있어』

춘자가 도리머리를 흔들며 반대를 했다。

『그럼 뭘 하랴?』

『내가 언니한테 꼭 해주고싶은 게 뭔줄 알아? 결혼식이야。그렇지만 그돈 가지고 결혼식은 어림도 없을테고…』

느닷없이 친정어머니처럼 정이 헤프고 노숙해진 춘자의 태도에 오목이는 뭉클하니 덩달아 울먹이며 말했다。

『결혼식이 뭐 그리 대단해서…정 섭섭하면 나중에라도 하면 될걸』

『그게 그렇지가 않아。나중에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치않지도 않아。〈밤차〉에 나오는 여자들 나 빼놓고는 다 한두번 결혼 안해본 여자 없는데 실패한 원인이 식을 안했기 때문이래。식은 매듭 같다나。매듭이 없으니까 풀어지기도 쉬울수 밖에…』

『넌 어린 나이에 아는게 참 많기도 하다』

『그게 뭐 좋우?』

『가봐야할까봐。오늘 해안에 할게 너무 많거든』

『그 돈으로 결혼식 대신 사진이라도 찍어둘래?』

『사진?』

『그래、사진。면사포 빌려주는 사진관도 있대。그 뻐드렁니가 팔잖하느라고 그 가짜 결혼사진 싫다고 그러면 그냥이라도 찍어、면사포대신 결혼기념이라는 글씨를 넣어달라고 그래、꼬옥 그렇게 해야한다。언니』

『그래 알았어』

오목이는 와락 춘자를 껴안았다。춘자도 영화에 나오는 애인들의 포옹처럼 단단히 엉겨붙었다。

『배웅 나오지마』

오목이가 먼저 춘자를 밀어내고 총총히 집을떠났다。바람이 센 날이었다。맞바람을 가슴에 안고 허허대며 뛰어내리다말고 돌아다본 맨꼭대기 집 옆에서 춘자가 손을 흔들고 서있었다。머리털과 옷자락이 한꺼번에 바람에휘날리고 있는게 마치 해진 깃발처럼 보였다。

뭐라고 악 쓰는 소리도 들렸다。잘살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진을 꼭찍어두라는소리 같기도했다。

밤차가 남기고간 슬프고아늑한 기적소리 같기도했다。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보내실 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도시 …… 주 ……
우편번호 □□□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서울의 「안방 월드컵蹴球」도 熱風
外交街 탄성·悲憤 뒤범벅

눈부비며 때늦은 "필름"에 눈길
우리新聞들고 "읽어달라" 珍風景

◇프랑스인 르누벨씨가족이 프랑스—오스트리아전에서 프랑스가 결승골을 넣자 박수를 치며 환성을 질렀다。(2일밤10시30분)

지금 유럽, 南美등 축구국가 사람들은 「82월드컵」축구열풍에 휩싸여 있다. 마술사같은 드리블링, 대포알같은 강슛—. 둥근공이 이리 꽂히고 저리 나를때마다 탄성과 비탄이 교차한다. 그열기가 축구팬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조금쯤은 전해져있다. 때늦은 필름이나마 TV중계가 있는날이면 밤늦게 까지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화랑팀이 그 그라운드에서 뛰고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맛은없다. 「월드컵축구」를 서울에서 진짜 즐기고있는 사람들은 주한외국인들—。자기나라 축구팀을 스페인에 보낸 사람들이다.

花郞없어 짜릿한 맛 덜한 韓國人도 「魔術」엔 넋잃고

승승장구 브라질人 뽐내고
戰爭·축구 모두 쓴맛 기죽은 아르헨

지난달13일 개막과 함께 일기 시작한 주한외국인들의 축구열기는 2차리그전이 펼쳐진 지난28일부터 더욱 뜨거워졌다. 2차리그에 진출한 12강중 9개국이 우리나라와 대사또는 영사관계를 맺고있는데 이들국가의 주한외국인들은 온신경이 지금 월드컵에 쏠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漢南洞과 西部二村洞일대의 외국인주택촌에서는 심야에 때늦은 환성이 터져나오곤 한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나 무역회사등 근무처에서도 하루종일 월드컵이 화제다.

특히 4강진출이 유력한 브라질, 잉글랜드, 프랑스 사람들은 영자신문의 외신보도에 성이 차지않아 국내스포츠신문을 사들고 한국인에게 읽어달라고 조르는가 하면 본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푸는등 극성이 대단하다.

이들은 외신보도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면서도 승패를 떠나 녹화방영되는 경기를 빼놓지않고 시청하면서 축구의 진수와 애국심을 함께 즐긴다.

2일밤10시 서울龍山區 漢南洞주공南山빌리지 A동308호 프랑스인 베르트롱·르누벨씨(26·주한프랑스대사관근무)집。르누벨씨와 부인 아네크씨(26) 딸 상드라양(6)그리고 프랑스인 친구등이 KBS제1TV에 채널을 맞춰놓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대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29일에열린 경기여서 보도를통해 결과를 알면서도 르누벨씨가족은 환성과 탄성을 지르는등 스탠드에서 직접 경기를 구경하듯 열광했다.

르누벨씨는 「그동안 월드컵경기를 한게임도 놓치지않고 보고있다」고 말했는데 1차리그전부터 모든게임의 스코어와 골게터를 기록한 스크랩까지 만들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가 지난58년대회때 8강에 든이후 24년만에 2차리그에진출했다며 4강진출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프랑스팀의 막심·보시선수와 서독의 후루베시선수를 좋아한다는르누벨씨는『프랑스팀의 축구는 물흐르는듯한 유연성이 특색』이라고 평하기도.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목에 힘을 주는 주한외국인은 브라질사람들. 승승장구의 쾌조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은 4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있어 주한브라질인들의 흥분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乙支路1街192 브라질대사관과 漢南洞유엔빌리지의 대사관저동에선 들리는게 축구얘기고, 지코와 소크라테스의 얘기다. 프레데리코·카를로스·카나우바대사등 브라질직원들은 월드컵개막이후 항상 싱글벙글한다는게 한국인 직원의 귀띔이다. 국내TV의 녹화방연을 보기위해 요즘은 아예 밤10시후의 약속이나 모임은 갖지않고 있다는것.

이번대회에 3개연맹이 본선에 진출, 그중 잉글랜드의 4강진출이 낙관시되는 영국인들도 브라질인못지않게 관심이 대단하다. 무역회사간부인 에드워드·A·홀랜드씨(29)는『찬란한 축구왕국의 영광을 이번대회에서반드시되찾게될것』이라고의기양양했다.

1차리그에서 3무승부로 2차리그에 진출, 강호 아르헨티나를 2-1로 침몰시킨 이탈리아는 21세기의 축구를 구사한다는 브라질과 4강진출을놓고 맞붙게됐는데다혀진의주한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가 기적을 이룰것』이라고흥분했고 서독인들은 알제리에 2-1로 패하고 오스트리아와의 대전에서 말썽많은 1-0으로 승리, 고전끝에 2차리그에 진출한 서독팀에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주한독일대사관직원 맨프레드·쉬타이너씨(31)는 『루메니게와 후루베시같은 스타를갖고도 고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개막전에서 우승후보로 꼽힌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격파한 벨기에는 2차리그에서 폴란드와 소련에 연패, 4강에서 탈락되자 주한벨기에인들은 흥분뒤의 좌절을 맛보아야했다.

그러나 주한아르헨티나인만큼 배신과 좌절을 맛본 사람은 없을것이다. 개막전에서 약체 벨기에에 1-0으로 패배한데다 영국과의 전쟁에서도져 주한아르헨티나인들은 심사가 말이 아니었었다.

南山빌리지에서 만난 알바베·곤잘레스씨(여)는 아르헨티나팀의 감독 세자르·메노티 감독이 말했듯이 『믿을수 없는 일이다』고 투덜거렸다.

『나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챔피언이며 마라도나는 신이 창조한 축구선수라고 믿는다』고 애써 현실을믿으려하지 않고 있었다. 【方敃俊기자】

銀行에 "가짜爆發物" 소동
分解해보니 "古物라디오"
託銀 청량리지점

20代 협박電話 "통장에 4천9백만원넣으라"

3일상오11시30분께 서울東大門區 淸涼里1洞278 서울신탁은행 淸涼里지점(지점장林成稜)에 20대 남자가 『코피자동판매기 뒤에 원격조정장치가된 폭발물을 장치했으니 온라인통장에 4천9백5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협박전화를 걸어와 은행직원과 고객들이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범인은 동지점차장李在久씨(41)에게 전화를 걸어「동아실업」이라면서 협박을 한뒤 구좌번호50101-82002445로된온라인통장에 입금시킬것을 요구했다. 李차장이 코피판매기뒤에 가보니 범인이 말한대로 검정색손가방이 놓여있었다。李차장이 가방을 확인했다고 하자 범인은『은행주변에서 동료가 감시하고있으니 비상벨을 누르거나 헛수작을 부리지말라』고 위협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뒤 李차장이 손가방을 열어보니 속에는 손수건1장과 가로20㎝, 세로15㎝의 플래스틱통이 들어있었다.

은행직원들은 이통이 폭발물인것으로 알고 고객들과함께 대피했고 긴급출동한 경찰이 플래스틱통을 분해했다.

분해결과 이플래스틱은 길이 10㎝, 지름 1.5㎝크기의 원통 3개를 묶고 라디오부속품으로 시한폭발장치인것처럼위장, 9V짜리 건전지 1개를 붙여놓은 가짜폭발장치인것으로 밝혀져 폭발협박극은 싱겁게 끝났다.

경찰은 이플래스틱통을 군폭발물전문가에게까지 감정시켰는데 3개의 원통속에는 드로프스 사탕알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제시한 구좌를 추적한 결과 예금주가 仁川市中區京洞13의2 姜泰男씨(28)이며 姜씨가 가공인물임을 밝혀내 범인이 범행전에 미리 가공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수 도서벽지 15곳대상
공무원 手當을 대폭引上

내무부는 7월부터 도서벽지 15개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근무하는공무원들이 월근무수당을 현행1만3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려주기로했다.내무부는 이밖에 뱃길로 8시간 이상 걸리는 도서지역8개소도 특지로 선정, 수당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신설된 15개특수지역은 다음과같다.

▲경남梁山郡院洞面善里▲경남南海郡二東面尙州里▲강원春城郡東面上傑里▲강원原城郡富論面丹江里▲〃寧越郡上東邑▲〃平昌郡美灘面▲〃旌善郡舍北邑▲〃旌善郡東面▲충남保寧郡嵋山面▲전북井邑郡山內面▲경북安東郡豐川面漁潭里▲〃安東郡臨東面知禮里▲〃安東郡禮安面三溪里▲〃尙州郡牟西面井山里▲〃聞慶郡加恩邑上槐里

美大使館에 불
8坪태워, 漏電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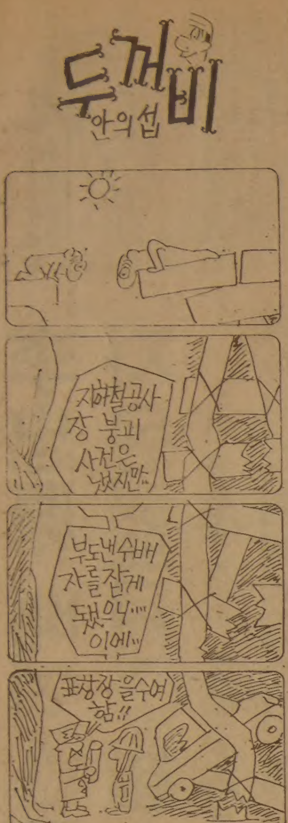
3일낮 12시30분께 서울鍾路區世宗路82 주한美대사관 2층 영사관사무실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8평가량의 내부와 응접소파등을 태워 70여만원의 피해를내고 10분만에 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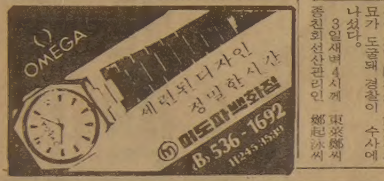
이날 美대사관은 휴무로 영사관사무실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구내에있던 미국인직원이 창문으로 연기가 새나오는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불이나자 소방차 10여대와 美8군소방대가 출동, 창문을 깨고 들어가 진화작업을 폈다.

경찰은 누전으로인해 불이 난것으로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5-2861





朝鮮朝 領議政분묘 도굴
孝宗때 鄭太和 明器·誌石등 없어져
서울 舍堂洞

◇영의정 鄭太和의 묘에서 도굴했다가 그냥 놓아두고 도망친 제기。

朝鮮朝 孝宗·顯宗때 영의정을 지낸 陽坡公 鄭太和의 묘가 도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새벽4시께 東萊鄭씨 종친회선산관리인 鄭起泳씨(48·서울銅雀區舍堂4洞산229의6)가 서울 銅雀區 舍堂4洞산32의2에있는 선조陽坡公의 묘를 돌려보기위해 접근하자 도굴꾼들이밤새 도굴한 明器17점과 작업에쓴 삽·괭이·해머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앞서 鄭씨는 지난달27일상오 이묘가 봉분의 형체도없이 파헤쳐진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었다.도굴꾼들은 가로1m 세로2m의 사각형으로 봉분부분서 파들어가 그안에서 다시 직경60㎝가량을 원형으로 파고 관을 보호한 석회벽까지 헤쳤다.

도굴꾼들은 첫번째 도굴에 이어 이날 길이1m가량 더 판뒤 대형해머로 관을덮은두께50㎝가량의 석회벽을 부셔놓았으나 관은 파손되지않았다.

도굴현장에나온 후손이자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인 鄭良謨씨(48)는『도굴창으로 봉분을 찔러봤으나 가뭄으로 흙이딱딱해 부장품이있는지의여부가 확인되지않자 봉분을허물어내고 도굴한 것으로 추정되며 묘。에는 최소한 60여점의 明器가 있을것으로 추정돼 무늬가새겨진明器는 범인들이 가져간것으로 보인다』고말하고 지석(誌石)10여장도보이지 않는것으로보아 도굴꾼손에 들어간것같다』고말했다.

가뭄被害 北上
우려地區 淸原·報恩·論山까지 확대
旱害대책비 30億추가支援

가뭄이 계속됨에따라 가뭄피해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일 농수산부에따르면 지난28일까지嶺·湖南지방의18개郡지역이던 가뭄우심지역이 2일현재 忠北永同, 慶北軍威·淸道·慶南 密陽·蔚州등이 추가돼 모두 23개郡지역으로 확대됐고 가뭄우려지구도 嶺·湖南지방에서 忠北淸原·槐山·報恩, 忠南 論山·公州·扶餘등 忠南·北일대까지 북상했다.

최근의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전국 1만5천6백50개저수지중 58%인 8천8백14개소가 이미 고갈된데다 벼의 수분요구가 커지고 증발량이 늘어 앞으로 용수부족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이미 방출한 31억원의 한해대책비외에 예비비에서 慶北 10억원, 慶南 7억원, 全南 7억6천만원, 忠南·北 2억6천만원 모두 30억원을 추가지원, 하상굴착, 기계관정, 이동식양수시설을 강화토록했으며 가뭄우심지역에 38명의 본부직원을 급파, 한해극복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하상굴착, 들샘및 소형관정은 시설비의 80%를 국고및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이동식 양수시설은 90%를 지원하며 기계관정과송수호스및 유류대금은 전액지원키로했다.

韓英洙의원 起訴

서울지검 형사1부 朴鍾喆부장 검사는 3일 간통혐의로 구속된 民韓黨소속 韓英洙의원(47)과 朴仁淑씨(35)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韓의원의 변호인단은 韓씨가 현역국회의원 이라는 점을들어 검찰에 불구속수사를 요청했었다.

換錢배후 암달러商 구속
수배 金琫燮등 3명검거
34만弗 사건

미화34만달러 밀반출기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3일 수배했던 환전브로커 金琫燮씨(31·서울江南區駿院洞 한신공영 아파트329동 1201호)李永鎭씨(32·서울東大門區典農4동558의83)와 여권수집책 許相萬씨(36·서울西大門區延禧洞의아파트20동202호)등 3명을 검거, 金씨와 李씨는 외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許씨는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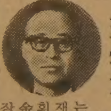
검찰은 또 金씨등에게 거액을 대주어 여행자수표(TC)를 발급받도록한 암달러상조직의 하수인 金龍五씨(54·서울江南區論峴洞101의12)를 외환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일본인 하야마씨가 현지처 鄭銀淑씨(48·구속중)외에 5~6명의 밀수금괴 판매책을통해 시중에 금괴를 팔아왔고 이 대금을 암달러상 조직을 통해 환전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환전총책이며 암달러상인 車연옥씨(53·여·서울西大門區橋洞)등 4명을 수배했다.

西小門지하철붕괴
現場 소장등 2명에 令狀

속보=서울西小門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은 3일 極東건설현장소장 安世濟씨(44)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감독관金榮達씨(45)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極東건설사장 金明根씨(49)동토목부장 南章淵씨(46)동공사과장 文宗彦씨(3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高麗大 총장에 金俊燁교수 선출



高麗大는 3일 재단이사회를열고 金相浹총장의 국무총리서리 임명으로 공석이된 총장후임에 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장 金俊燁교수(61·사진·사학과)를 선출,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高麗大는 이와함께 金相浹전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했다.

5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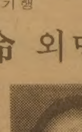
◆우황청심환密輸 선원拘束

【蔚山】蔚山세관은 3일 부산·라스코해운소속 원목 수송선 코리안터호(1만2천톤급)선원 유종환씨(39)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는데 유씨는 미국산원목을 중공에 실어다주고 지난2일 蔚山미포조선소에 입항하면서 중공제 우황청심환 4백48개(싯가 4백만원)를 몰래 늘여오다 적발됐다는것.

◆경운기 전복 9명重輕傷

【堤川】2일 하오5시께 충북堤原郡淸風面丹里앞길에서 이마을 정재출씨(48)등 9명이 기우제를지내기위해 3km떨어진 南漢江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경운기를 타고오다 높이2미터의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져 중경상을 입었다. 【鄭】

「용감한 韓國人」
被拉機안에서 仁術편 金舜謙교수
꺼져가는 生命 외면할수 없었다



스리랑카인에게 납치된 비행기안에서 침착하게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치료, 생명을 구해낸 金舜謙교수(43·사진·高大의대)는 의사생활 15년동안 『이같이 극한상황속에서 환자를 돌본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金교수는 지난30일 스리랑카인에 납치, 방콕공항에착륙한알리타리아항공점보기에 탔던 7명의 한국인중 한사람.

金교수가 자신이 탄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을 안 것은 30일새벽 방콕의 돈무앙공항에 착륙했을때。비행기바퀴가 거칠게 착지했고 활주로주변에 소방차가 즐비했다. 비행기도 공항 외진구석에 정지한채 기내 방송에서 나오는 스튜어디스의 목소리는 안정을 잃은채 『위급한상황이 생겨 늦어진다』는 메시지뿐이었다. 기내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곧 이어 의사를찾는 메시지가 나왔다. 金교수는 자석에 쇠붙이가끌리듯 달려나갔다. 1등석에 탔던 50대남자가 신음도 제대로 못지르고 입으로 피거품을 토해내며 숨이 꺼져가고 있었다.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맥박이 현저히 약해져가고있었다. 알약으로된 강심제를 먹였으나 환자의 입에서는 피거품이 계속나왔다.『큰일났다』는 생각에 金교수는 기내에 비치된 구급강심제주사를 놓고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운채 관제탑에 연락하도록 스튜어디스에게 호령을 했다.

환자가슴에 귀를 대며 안마와 인공호흡을 시켜가며 2시간을 씨름하자 구급차의 접근이 허용됐다.

金교수가 돌보는 동안 납치범은 50세이상및 18세미만 승객을내보내줬다。머리가 약간 벗겨져 나이가 들어뵈는 金교수는 아무 탈없이피납비행기를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다。또 그런 승객들이 많았다。그러나 金교수는 꺼져가는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갈수가없어 비행기안에그대로남았다。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직업의식이 극한상황을 이겨낸 것이다.

金교수가 응급조치로 살려낸 사람은 일본京都大교수。金교수는 납치범이 승객을 놓아준후 공항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자리를 떴다.

『어떤상황아래서도 의사는 환자를 버릴수 없죠。의사가 꼭 필요했던 자리에 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싱긋 웃는 金교수의 모나지않은 얼굴에 「용감한 한국인」의 모습이겹쳤다. 【朴珍烈기자】

한국관
연중무휴
○ 회의실 마련
○ 각종파티 환영
○ 저렴한 음식가격
※오전10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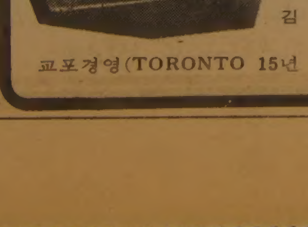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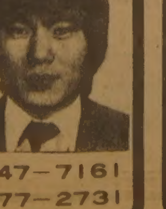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덴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幕오른 수영시즌… 첫날 한국新 4개

李忠原 배영2百m서 자유형百m 崔允庭도

자유형4百m 李始恩·혼계영4百m 體育大

금년도 수영시즌 개막경기서 한국신기록 4개와 대회신기록20개가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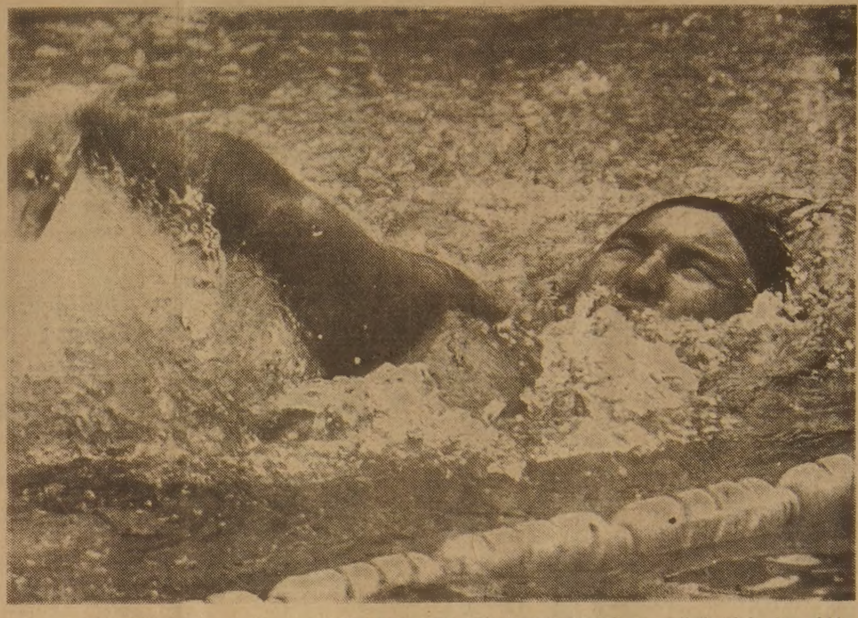
3일 서울운동장 수영장서 열린 제37회 전국수영대회겸 제9회 아시안게임 파견선수 선발전 남대배영 2백m결승에서 국가대표 李忠原(고려대)은 2분19초34로 자신의 종전 한국기록을 0·29초 단축하고 한국신기록을세웠다。

한편 여고자유형 1백m예선에서 번외선수로 출전한崔允庭(상명여고)은 자신의 한국기록을 0·05초 단축한 1분02초1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며 한국체대는 남대혼계영4백m결승(陳鉉哲·李[illegible]·趙斗熙·李[illegible])서 4분14초35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여고 자유형4백m결승에서 李始恩(상명)은 4분36초1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한국신기록

▲남대배영2백m결승=李忠原(고려대)2분19초34(종전 2분19초63) ▲여고자유형 1백m 예선=崔允庭(상명여고) 1분02초12(종전1분02초17) ▲남대혼계영4백m결승=한체대 4분14초35(종전 4분15초08) ▲여고자유형4백m결승=李始恩(상명) 4분36초14(종전4분37초05)



◇한국新의 力泳 남대배영 2백m 레이스에서 李忠原(고려대)이 力泳하고있다。李는 2분19초3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力道서도 한국新

9년만에 元信喜기록 경신

金元春、67·5kg級인상서 133kg

◇金元春

金元春(28·전매청)은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및 제36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9월14~24일·유고) 파견선발전 67·5kg(라이트)급 번외인상경기에서 1백33kg을 들어올려 9년만에 1kg돌파하는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종전기록은 지난73년 金山전국체전에서 元信喜가 기록한 1백32kg이다。

52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무명의 金元春은 3차례 인상시기에서 1백30kg까지 기록하고 신기록을 겨냥하는 번외경기에서 1백33kg에 성공했다。

金元春은 또 용상에서 1백65kg이상(한국최고기록은 1백67)들어올리면 토틀에서 또하나의 한국 신기록이 기대됐지만 1백55kg에 그쳐 토틀기록 경신은 좌절됐다。

이날 기록경신이 기대된 60kg급(페더) 용상경기의李龍求(조폐공사)는 3차시기에서 1백52·5kg를 들고 번외에서 한국최고기록(1백55kg)을 노려 1백56kg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대표선수 최종선발은 이번 대회기록을 참조하여 연맹이사회에서 결정한다。

許永模「金」

日 세가와에 判定勝

亞洲아마복싱

제10회 아시아아마복싱 선수권대회 최종일경기가 3일 잠실체육관서 벌어져 라이트 플라이급의 許永模가 첫금메달을 차지했다。

12개전체급의 결승전이 벌어진 이날 첫대전에서 한국의 許永模는 日本의 강타자 세가와와 맞서 다양한 테크닉을 살려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거뒀다。

高大、近畿제압

韓日대학 친선야구

高麗大는 2일밤 서울운동장서 열린 韓·日친선대학야구1차전에서 2개의 홈런을 포함한 3안타로 近畿大에 6-2로 역전승을 거뒀다。

高大는 鄭三欽·楊相汶(3회)·宣銅烈(5회)이 계투、近畿大의 타봉을 산발5안타로 막고 5회말 1번 崔洪錫의 2타점중전적시타와 포볼 3에러·희생플라이등을 묶어 3점을 빼낸뒤 7회말 崔洪錫의 솔로、8회말 金貞洙의 중월투런호머로 3점을 보태 역전승을 거뒀다。

近畿大는 에이스 모리나가와 우에또(5회)가 부진、포볼8개를 허용했다。

大宇남자卓球 단체전準優勝

全美오픈大會

大宇중공업 주축의 한국남자 탁구팀은 2일 美國 디트로이트市에서 속행된 全美오픈탁구대회 남자단체 결승전에서 日本에 3-0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남자 개인전에서 金泰秀가 준준결승에 진출했으며、申得花 朴末粉 張金玉은 여자단식 8강전에 올랐다。

나브라틸로바 에버트와 爭覇

윔블던 테니스

【윔블던(英國) 2일AP·UPI=聯合】지난해 윔블던패권을 차지했던 크리스·에버트·로이드(28·미국)와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25·미국)가 윔블던 테니스대회의 여자단식패권을 놓고 대결케됐다。

에버트는 준결승전에서 노장 빌리·진·킹을 맞아 2-1(7-6、2-6、6-3)로 힘겹게 이겼고 나브라틸로바는 西獨의 베티나·붕게(19)를 2-0(6-2、6-2)으로 물리쳤다。

링에 復歸하면 해글러에 挑戰

눈수술한 레너드

【버팔로(뉴욕州)2日UPI=聯合】세계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는 만일 자신이 복싱을 계속하게된다면 세계미들급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5월 망막수술로 로저·스태포드와의 타이틀전을 취소한바있는 레너드는 링에의 복귀여부는 3~4개월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컵축구

아르헨 脫落

宿命의 라이벌 브라질에 完敗

3—1

2次리그

【마드리드2日=聯合】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브라질은 3일 새벽(한국시간) 바르셀로나사리아경기장서 벌어진 2차리그 4일째 C조경기서 前대회 우승팀이자 숙명의 라이벌인 아르헨티나를 3-1로 격파, 4強진출 문턱에 한발더 다가섰다。

1승의 브라질은 6일새벽 4강진출권을 놓고 이탈리아(1승)와 대결하게 되는데 골득실차에서 브라질이 앞서고있기때문에 무승부만돼도 브라질이 4강전에 오르게된다。前대회챔피언 아르헨은 2차리그서 2연패를 기록, 탈락의 비운을 맛보았다。

브라질은 전반12분「하얀펠레」라는 별명을가진 HB 지코가 골대를맞고 뛰어나온 볼을 득점에 연결, 선제점을 올리고 후반들어 세르징요、후니오르가 골을 추가하여승리를 굳혔다。아르헨은 경기종료1분전 디아즈가 골을기록, 영패를 면했다。

이날 아르헨의 슈퍼스타인 마라도나는 경기종료 4분전 와일드 플레이로 퇴장당했고 이보다 1분전 브라질의 지코가 아르헨의 거친플레이로 부상을 당했다。

西獨은 홈팀 스페인制壓 2—1

한편 마드리드서 열린 B조 경기에서 西獨은 리트바르스키、피셔의 득점을 묶어 홈 그라운드의 스페인을 2-1로 제압, 1승1무로 2차리그 일정을 마쳤다。西獨의 4강진출 여부는 6일 열리는 잉글랜드-스페인 대전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데 잉글랜드가 2골차이상으로 스페인을 꺾으면 西獨의 준결승진출은 좌절된다。

이날 현재 개인득점 레이스에서는 루메니게(서독) 보니에크(폴란드) 지코(브라질) 등 3선수가 각각 4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2차리그전은 4일하루를 쉬고 5일 A·D조 마지막경기가 벌어진다。

◇2차리그 제4일

▲B조

서독 2-1 스페인
(1승1무) (1패)

▲C조

브라질 3-1 아르헨티나
(1승) (2패)

◇지코"만세" 브라질의 슈퍼스타 지코(左)가 아르헨티나와의 대전서 전반11분 선제점을 올린뒤 두손을 번쩍들고 뛰어나오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골키퍼 피올(7번)이 볼을 잡으려고 골대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바르셀로나3일UPI電=聯合】

戰爭에 지고 蹴球에 지고… 市民들은 술로 화풀이

아르헨티나 "脫落은 했지만 우리보다 나은팀 없다"

아르헨陣營 허탈

◆…브라질에 3—1로완패, 준결승진출이 좌절된 아르헨티나 진영은 허탈감과 낙담이 뒤섞인 착잡한 분위기。

메티노감독은 『우리팀은 운이 없었다。그러나 어느 팀도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우세한 팀은 없었기때문에 실망만 하고있지는 않겠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對伊戰 안심못해

◆…브라질의산타나감독은아르헨과의경기결과에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경기종반 아르헨티나의 거친 플레이에 골게터 지코가 크게 부상한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산타나감독은 6일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안심할수 없다고 말하고 매게임마다 성의를 다하는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신중론을 펴기도。

勝戰譜에 삼바춤

◆…對아르헨戰의 승리가 전해지자 수백만의 브라질축구팬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브라질！브라질！」을 외치며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리오 데 자네이로의 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 즉흥적으로 구성된 악대가 연주하는 음악에맞춰 삼바춤을 추었으며 일부팬들은 아르헨티나가 패배를 모면하기위해 브라질 선수들을 고의로 차징했다면서 특히

월드컵通信

마라도나가 후반에보인 거친 플레이는 그의 실력이 브라질선수에 미치지못한데대한 앙갚음이었다고 욕설을 퍼붓기도。

아르헨 거리한산

◆…포클랜드전투에서英國에 패배, 자존심을 크게 손상당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對브라질의 축구전쟁에서 다시 패배함으로써 다시한번 굴욕감을 맛보았다。

아르헨티나신문들은 지난달 포클랜드戰의 패배를 보도하던것과 마찬가지로 1면에 「아르헨티나탈락」이라는 제목으로 對브라질전의 패배를 보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는 리오데자네이로와는 대조적으로 텅텅 비었으며 대신 선술집과 가정에서 술로 화풀이를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브라질優勝 장담

◆…왕년의축구황제펠레는이날 모국인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 경기를 관전한후 『브라질이 이렇게만 싸운다면 이번대회우승은 틀림없다』고 전망。

TV보느라 怠業

中共의 한 선반공이 선반을 돌아가도록 내버려둔채 TV로 방영된 월드컵축구경기를 보려가는 바람에 기계가 못쓰게 됐으며 다른 공원 2명도 아프다는 핑계로 작업장을 이탈, 월드컵축구구경을 했다고 四川日報가 비난。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30 새벽기도 6:00 (오전)로,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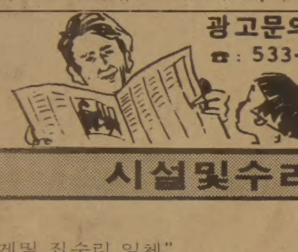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합)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병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Part Time (시간당 $7.00)
건축일에 취미있으신 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유경험자 Store Helper(남자) 구함.
Full Time. 전화 : 422－3121 (Mr. 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Air Conditioner 급매, General Electric.
8,000 B.T.U. 2주 사용했던것 임.
$265. 전화 : 431－6882 (Mrs. Kim)

큰 Shopping Centre안.
년 11만불 보장. 순이익 절반. 렌트: $650. 리스 갱신 가능.

영업시간: 월－수: 9시30－6시, 목－금.토 9시30－5시,
요구액: 3만불 + 스탁
연락처 : Montreal(514)-691－3704, 691－4751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2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1) Dry Cleaning Pick Up Store
Weekly Turnover: $1,000. Asking Price: $35,000
3 year lease + 3 year option. Store + 4 Bed Rm.Apt.
May be leased or bought.
2) Donuts Shop
Weekly Turnover: $4,000. Asking Price: $135,000
$65,000 down. Rent: $2,000 5 year Lease + 3 year option
Mr. Ryu 762－8255
Royal Trust Real Estate Co.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Varity Store for Sale(Hamilton) 전화 1－529－7491
(1)Store with 3 Bed room House. 년매상: $110,000 계속증가.
(2)Business only. 년매상: $300,000+곧 써브머린 open(최고지역)

Food Store 급매.
시간 짧고 수익성 좋은 가게를 급매코져 함.
주매상 : $12,500이상
2038 Queen S. E.
꼭 관심있으신 분 오후 3시이후 내방 바람.

Smoke Shop for Sale
년매상 : $325,000 (Eglinton & Caledonia)
전화 : 635－8405 (Vitale)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매매 (Building & Business)
(3 Bed Rm Apt. + 2 Bed Rm Apt.) 포함.
주매상: $7,500이상. 아스킹: $185,000 전화: 1－898－4326 (Mr.신)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Convenience Store for Sale
미시사가 Clarkson 지역
전화 : 822－2247 (Sa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Variety Store for Sale.(Bloor & Christie)
주매상 : $4,000이상. Good Lease.
Tom. 534－7785 Cosmos Realty Co., Lt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Room Mate 구함.(Downtown)
2 Bed Rm. Apt. 유학생 부부입니다.
전화 : 233－9534 (Mr. 정)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염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서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퀸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